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柳 浚 景 教授 指導
碩士學位 請求論文

『玉樹記』 研究

- 놀이와 遊興을 中心으로 -

2015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漢 文 學 科

朴 知 慧

『玉樹記』 研究

- 놀이와 遊興을 중심으로 -

柳 浚 景 教授 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5年 5月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漢 文 學 科

朴 知 慧

認 准 書

朴知慧의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2015年 5月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論 文 概 要

『玉樹記』는 19세기 한문장편소설로 小楠 沈能淑(1782~1840)의 작품이다. 그가 태인 현감을 역임하고 말년인 1835년 ~ 1840년 사이에 창작하고 남윤원이 1883년에 한글로 번역한 작품이다. 남윤원이 국문본 옥수기 발문에서 밝혔듯이 『玉樹記』의 중심내용은 남녀의 결연담으로 기존의 연구도 남녀의 결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玉樹記』에는 가유진 형제의 결연 과정의 반복 외에도 서루에서의 놀이와 모의전쟁 놀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작품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주인공들이 놀이와 유희를 즐기는 모습이 어떻게 형상화 되었고 그 특징과 의의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고는 이 논의를 단초로 『玉樹記』가 19세기의 소설사의 새로운 국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하여 이전 소설과 다른 특징을 찾고자하였다. 그 결과 전대 소설의 전통이나 기존 사대부의 의식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을 밝히기 위하여 “웃음”과 “유희”에 주목하였다.

『玉樹記』에서 웃음과 유희가 전면에서 드러난 장면은 서루 놀이와 모의전쟁 놀이기 때문에 이 두 놀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장편소설의 특성으로 각 회가 어느 정도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두 장면을 뽑아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루 놀이와 모의전쟁 놀이에 나타난 유희 양상은 시문, 대화, 겨루기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유희 양상 속에 드러난 서술적 특징은 서사의 지연, 농담을 통한 웃음, 등장인물을 희화화하는 방법으로 그려졌다.

『玉樹記』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동일한 모티브를 여타 소설과의 비교를 통해 서술하였다. 『玉樹記』를 비교하기 위한 소설로 金萬重의 『九雲夢』과 南永魯의 『玉樓夢』을 선정하였다. 『玉樹記』에서 드러나는 속임수

모티브는 『九雲夢』에서도 볼 수 있는 요소이며 구운몽 보다 서사가 강화되고 웃음이 확대된 특징이 있었다. 또 다른 모티브로 서로 겨루는 양상은 남영로의 『玉樓夢』과 비교하였을 때 겨루기에 대한 지식이 드러난 것을 알 수 있었다.

『玉樹記』는 놀이와 유흥으로 작품을 이끌면서 이를 통해 등장인물들이 유쾌하고 자연스럽게 묘사된다. 이것은 작가의 생활과 의식으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沈能淑은 그의 산문집인 『後吾知可』에서 소품적 글쓰기를 하였다. 『玉樹記』가 이전 소설보다 유흥을 드러내는 것이 강화되었고, 沈能淑도 개인의 욕망을 드러내는 글쓰기를 산문 작품에 남겼기 때문에 『玉樹記』에 소품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玉樹記』는 전대 소설의 관습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놀이와 유흥을 택하고 있으며 놀이를 즐기는 과정에서 이전 소설과 달리 유희적 성격이 강화되고 그 결과 기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인물의 유형이 아닌 새로운 유형이 창조된 것이 의의라고 할 수 있겠다.

目 次

論文概要

I. 序論	1
1. 研究 目的	1
2. 研究 現況 및 研究 方法	2
II. 19世紀 小說史와 沈能淑의 生涯	5
1. 19세기 小說史	5
2. 沈能淑의 生涯	7
III. 遊興 樣相과 敘述 特徵	11
1. 놀이와 遊興	11
1) 詩文을 통한 遊興	13
2) 對話를 통한 遊興	16
3) 겨루기를 통한 遊興	25
2. 敘述의 特徵	31
1) 敘事의 遲延	32
2) 弄談을 통한 웃음의 強化	36
3) 등장인물의 희화화	38
IV. 『玉樹記』의 意義	42
1. 『玉樹記』의 特徵	42
1) 敘事의 擴大와 웃음의 強化	43

2) 博學한 知識의 表出	48
2. 『玉樹記』의 小品的 性向	50
3. 『玉樹記』의 小說史的 意義	55
V. 結論	58

參考文獻

ABSTRACT

I. 序 論

1. 研究 目的

小楠 沈能淑(1782 ~ 1840)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걸쳐 활동한 문인 중 한명이다. 沈能淑의 문학 활동으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벼슬을 그만두고 1835 ~ 1840에 지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玉樹記』의 창작이다. 『玉樹記』는 沈能淑이 벼슬을 그만두고 만년인 1835년 ~ 1840년에 지은 4권의 漢文長篇小說이다. 이후 沈能淑의 외손자인 藕堂 閔應植이 봉해 남윤원에게 부탁하여 한글로 번역된 작품이다.

지금까지 『玉樹記』 연구는 작가의 계급적 위치를 상이하게 이해하고 소설의 유형도 영웅소설, 가문소설, 벌열소설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김경미는 앞 사람들의 시각과 달리 『玉樹記』가 19세기 소설의 이념에서 벗어나 개인의 욕망과 웃음 등 인간의 일상적인 면모를 담아내는 장르로 변화하고 있다고 시각을 달리하였다. 그 근거로 『玉樹記』의 중심 사건은 반복되는 결연과 등장인물들이 일상에서 행하는 놀이로 파악하고 인물들이 재치와 유머가 있다고 보았다. 필자는 이 논의를 단초로 『玉樹記』가 19세기의 소설사의 새로운 국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하여 이전 소설과 다른 특징을 찾고자하였다. 그 결과 전대 소설의 전통이나 기존 사대부의 의식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을 밝히기 위하여 “웃음”과 “유희”에 주목하였다. 웃음과 유희는 기존 단념으로부터 자유롭고, 경직된 이면에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첫째, 유희의 양상과 서술 특징을 분석하여 『玉樹記』의 특징을 살펴보고 둘째, 이것이 다른 소설과 어떻게 다른지 고찰한 후 셋째, 조선후기 소설사에서 『玉樹記』가 가

지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玉樹記』를 연구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고려서림에서 1988년에 발간한 『玉樹記』 1·2권과 보고서에서 2013년에 발간한 장호현 외 4인의 『校勘本 韓國漢文小說 家庭家門小說』를 비교하여 보았다.

2. 研究 現況

沈能淑의 『玉樹記』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는 김종철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김종철은 작가 고증을 통해 『玉樹記』의 작가가 ‘沈能淑’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내었다. 그리고 그는 沈能淑을 상층사대부로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玉樹記』를 분석하여 사대부의 세계관을 읽어내었다. 또 『玉樹記』가 영웅의 서사구조와 비슷하다고 보고 ‘영웅소설’로 규정하였다.

전성운²⁾은 김종철의 논의와는 다르게 沈能淑을 중심에서 소외된 사대부 계층으로 보고 중세적 사유에서 벗어나려는 의식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玉樹記』를 ‘가문소설’로 규정하였다.

이병직³⁾은 『玉樹記』의 세계관에 유가적 태도와 도가적 태도가 함께 작용하였다고 보았다. 沈能淑이 초년에는 도선적 세계에 관심이 많아 그와 관련된 글이 많이 남아 있지만 장년기 이후에는 유가에 심취한 글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玉樹記』를 ‘별열소설’로 규정하였다. 또한 조광국⁴⁾도 『玉樹記』를 ‘별열소설’로 규정하고 작품세계와 향유층을 중심으로 그 성향을 고찰하였다.

이기대⁵⁾는 『玉樹記』를 沈能淑의 이상적인 삶을 작품에 형상화 한 것으

1) 김종철, 「〈玉樹記〉 研究：作品構造와 世界觀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2) 전성운, 「〈玉樹記〉의 作品構造와 創作動因」,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3) 이병직, 「『玉樹記』에 반영된 沈能淑의 世界觀 검토」, 『국어국문학』 35, 문창어문학회, 1998.

4) 조광국, 「『玉樹記』의 闕闕의 성향」, 『한국문화』 30, 서울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2.

5) 이기대, 「沈能淑의 文學세계와 『玉樹記』」, 『어문논집』 48, 민족어문학회, 2003.

로 보았다. 沈能淑이 근기사족이지만 벌열가문이 될 수 없는 처지였고 자신의 불우함을 극복하기 위해 창작했다고 보았다.

김경미⁶⁾는 앞 사람들과는 시각을 달리하여 『玉樹記』는 결연과 놀이가 소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았다. 중세적 이념에서 벗어나 개인의 욕망과 웃음을 담아내는 장르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작품의 형상화와 서술 특징에 주목한 선행연구는 권경순⁷⁾의 논문이다. 권경순은 『玉樹記』를 결연 양상과 서술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결연 양상을 신분과 예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결연 과정에서 동일한 화소가 반복되거나 변용된다고 하였다. 서술 특징으로는 독자의 호기심 유도, 유쾌한 분위기 조성, 내면심리의 구체적 묘사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외에도 『玉樹記』 속에 형상화된 이국와 이민족을 연구도 3편이 있다.⁸⁾

이상으로 주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동안 『玉樹記』에 관한 연구들은 작품구조, 세계관, 장르, 서술특징에 대해 논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그 견해가 다양한 이유는 두 가지 까닭이 있다.

첫째, 선행연구자들은 작가의 처지와 계급적 위치를 바탕으로 『玉樹記』를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김중철과 조광국은 상층 사대부로 파악하였고, 전성운과 이병직은 소외된 사대부, 이기대는 근기사족, 김경미는 정치에는 소외되었지만 문화적으로 중심에 있는 인물로 보았다. 그 결과 沈能淑의 계급에 따라 『玉樹記』를 바라보는 상이한 시각이 존재하게 되었다.

둘째, 沈能淑의 다른 문학작품의 미비한 연구가 옥수기의 다양한 견해를 가져오게 되었다. 沈能淑은 『玉樹記』 이외에 『後吾知可』와 『文時』를

6) 김경미, 「『玉樹記』 연구」, 『고소설연구』 17, 고소설학회, 2004.

7) 권경순, 「『玉樹記』 연구 -結緣 樣相과 敘述 特徵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8) 조광국, 「『玉樹記』에 나타난 중국인식」, 『한국문학논총』, 2002.

탁원정, 「『玉樹記』에 형상화된 이국, 중국」, 『한국고전연구』, 2008.

탁원정, 「『玉樹記』속 호족이라는 이민족 형상의 특징과 의미」, 『고소설연구』, 2012.

서술하였다. 『後吾知可』에 관한 연구는 장호현에 의하여 간략하게 이루어졌지만 『文時』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 작품들은 沈能淑의 사상과 문학관을 알아 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이 두 작품과 연계하여 『玉樹記』를 연구하지 못한 것이 『玉樹記』의 다양한 견해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더불어 한계점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玉樹記』의 중심 사건 중 유흥이 드러나는 양상을 선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Ⅲ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玉樹記』의 유흥이 다른 소설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할 것이다. 그리고 『玉樹記』에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탐미적인 장면을 통해 소품적 성향을 알아보겠다. 마지막으로 앞의 논의를 통해 『玉樹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II. 19世紀 小說史와 沈能淑의 生涯

1. 19世紀 小說史

19세기 소설사는 소설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양상도 있고 쇠퇴하는 모습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영웅소설, 국문 장편소설, 한문 장편소설, 중국 번역 소설 등이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洪羲福(1794 ~ 1859)이 중국 소설 『鏡花緣』을 번역한 『第一奇諺』의 序文을 통해 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심지어 숙향전 풍운전의 뉘 가항의 천흔 말과 하류의 느즌 글시로 판본에 각각하야 시상에 락락하니 이로 기록지 못하거니와 대처 그 지은 뜻과 배픈 말을 붙진디 대동쇼이하야 스흘의 성정을 고쳐시나 스흘은 흠스하고 선악이 니도하는 계교는 혼그지라 전혀 분인녀즈와 무식천류의 즐겨보기를 위하고로 말습이 비루하고 계칙이 경천하야...9)

洪羲福은 『第一奇諺』 序文에 중국 번역 소설, 국문 장편소설, 영웅 소설의 이름을 거론한 뒤 당시의 소설을 평가하였다. 당시 유통되었던 소설은 중국 번역 소설과 <유씨삼대록>, <옥원재합>, <임화정연> 등 국문 장편소설, <숙향전>, <풍운전>과 같은 영웅소설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 작품의 뜻과 말은 대동쇼이 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작품은 부인여자와 무식천류가 즐겨보기 위한 것으로 비루하고 경천한 것이라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국문 장편소설과 영웅 소설이 이 시기에 이르러 새로운 면모를 드러내지

9) 정규복, 「『제일기언』에 대하여」, 『한중문학비교연구』, 고려대출판부, 1987, p.82.

못하는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¹⁰⁾ 18세기 여성 독자들 사이에서 유행하였던 국문 장편소설이 19세기에 이르러 새로운 소설을 창작하지 못하고 이전의 작품 세계를 반복적으로 구현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영웅소설도 역시 전대의 소설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소설의 번역은 19세기에 계속 지속되었고 홍희복은 새로운 소설을 번역함으로써 소설 창작 풍토에 새로운 자극을 주려하였다. 외국 소설의 번역은 새로운 작품이 나오지 못하고 침체되었던 소설계의 새로운 자극이 되었지만 뒤로 갈수록 독자층을 유지하고 확산하지 못하였다.¹¹⁾

19세기 소설사의 구도 중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한문 장편소설의 등장이다. 소설에 관한 인식이 변화되어 한문소설의 작가 층으로 사대부들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소설에 대한 달라진 인식을 통해 소설을 창작한 점이 특징이다.

소설의 인식이 변화한 것은 18세기의 정치적인 측면에서 연관이 있다. 사상과 문화의 변화가 일어나는 18세기가 끝나고 19세기는 세도정치가 만연하고 조선 왕조가 몰락되면서 일제의 강점이 시작되기 전의 시기이다. 19세기는 정치,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18세기와 대비되는 면모를 보이기도 하지만, 18세기 정조 시대는 소설사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정조가 文體反正을 통해 소설 독자와 소설 문체의 사용을 문제 삼은 결과 이 과정에서 ‘소설’이라는 주변 장르가 문인들의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¹²⁾

沈能淑이 『玉樹記』를 저술했던 19세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소설들이 공존하여 소설사를 풍성하게 했던 시기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것은 漢文長篇小說이 창작된 것이다. 소설을 천박하게 여겼던 한문 지식인들 사

10) 김경미, 「19세기 한문소설의 새로운 모색과 그 의미」, 『한국문학연구』 창간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학연구소, 2000, p.206.

11) 김경미, 위의 논문, p.207~208.

12) 김경미, 「19세기 소설사의 새로운 모색-지식,이념,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보고서, 2011, p.15.

이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나아가 소설을 창작한다는 의식을 지닌 사대부들이 나타난 것이다. 소설의 허구성이 이전 지식인들에게는 결함으로 여겨졌으나, 19세기에는 오히려 자신의 박학한 지식과 당대의 의식을 담아낼 수 있는 장르로 소설이 인식되었던 것이다.

19세기에 창작된 소설을 살펴보면 金紹行의 『三韓拾遺』, 南永魯의 『玉樓夢』, 徐有英의 『六美堂記』 등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상층사대부에 속하지만 정치적으로 소외된 위치에 있었던 문인들이다. 소설에 대해 달라진 인식을 바탕으로 소설의 구성, 문체, 인물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작품을 통해 자신의 세계관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즉, 19세기 소설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소설 장르의 위상 변화이며 소설이 지닌 허구성에 대한 적극적인 재인식이 밑받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¹³⁾

2. 沈能淑의 生涯

沈能淑은 본관은 靑松이며 자는 英叟, 호는 小楠이다. 그는 1782년(정조12년) 고부군수인 沈允之와 延安 金氏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큰 아버지인 沈亨之에게 繼子로 들어가 대를 이었다. 光山 金氏와 全州 李氏와 결혼하여 2남 2녀의 자식을 두었다.

그의 직계 선조로는 명종의 장인인 沈綱, 大司憲을 지낸 沈義謙, 海東樂府體를 최초로 정립시킨 沈光世 등이 있다. 대대로 벼슬이 끊이지 않은 집안이지만 후대로 갈수록 크게 현달하지는 못했다. 경제적 기반도 명종의 처가임으로 해서 세습 봉토가 지금의 京畿道 金浦 지역에 있어, 별열이나 세도 집단에 속하지는 못했으나 지속적으로 상층 사대부의 신분적 지위를 유지해

13) 이병직, 「19세기 한문장편소설의 사회문화적 배경 연구」, 『한국민족문화』 17 (2001. 9),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1, p.17.

왔다고 할 수 있다.¹⁴⁾ 그러나 그가 정치적으로는 소외되었을지 몰라도 문화에 있어서는 중심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沈能淑을 따랐던 洪翰周의 『智水拈筆』에서 그의 기록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小楠 沈能淑은 자가 英叟로 재주가 뛰어나고 박학하였으며 시가를 잘하고 고금의 일을 논변하기를 좋아하였다. 술을 수십잔 들이키면 그때마다 문득 경가와 제자백가서를 인용해 대는데, 줄줄 막힘이 없어 늘 온 좌중의 사람들을 굴복시켰다. 이 때문에 도성 안의 글 잘 짓기로 이름난 선비들이 그의 집으로 몰려들어 집에는 신발이 항상 가득하고 술잔을 세는 산대가 어지러웠으니 역시 근세의 孔文舉라고 할 만한다.

小楠은 어려서부터 신동으로 일컬어졌고 젊은 날에는 과거 공부에 전념하여 功令의 여러 문체에 뛰어났다. 다만 古文은 법도를 다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른 글에 비해 손색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近體詩는 절창이 많았으니 다른 시인들 중에서 쉽사리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 小楠은 풍채가 빼어나고 현결찬 장신이였다. 후배들을 장려하여 이끌어 주기를 좋아하였으며 풍류가 성대하여 한 번만 만나보아도 그가 英氣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¹⁵⁾

윗 글에서 묘사한 것처럼 沈能淑의 외모는 건장하고 빼어났으며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나고 시 중에서도 근체시에 뛰어난 인물이다. 또한 경사와 제자백가에도 능하였다. 하지만 古文은 법도를 갖추지 못하고 미비하였다. 이러한 모습에서 沈能淑이 古文에 반대되는 小品文에 관심을 가졌으리라는

14) 김종철, 앞의 논문, p.20.

15) 洪翰周, 『智水拈筆』, 아세아문화사, 1984, p.446~447. 沈小楠能淑, 字英叟, 有雋才博學, 善歌詩, 好談辨古今事. 飲酒數十盃, 輒援引經史百家, 滾滾不窮, 常屈四座. 以是落下名能文者, 多輻湊其門, 故戶屢恒滿, 觥籌交錯, 亦近世之孔文舉也. 小楠兒時, 以神童稱, 少工學業, 長於功令各體. 但古文未盡繩墨, 故遜於他文. 然其歌詩近體, 則多絕調, 詩家中未易多見. … 小楠貌丰秀頰而長, 好獎引後輩, 風流弘長, 一見可知其有英氣也.

김작을 할 수 있다. 그의 성격은 고금의 일을 논변하기 좋아하고, 후배를 이끌어 주기를 좋아하였으니 풍류를 지니고 호방한 것을 알 수 있다. 沈能淑의 집은 서울에서 문명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모여드는 장소였다고 하니 문화적으로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4세에 沈能淑은 처음으로 남동시사에 들어가 활발히 참여하였다. 이곳에서 나이는 가장 어렸지만 시는 잘 지었으며 시사를 주관하기도 하였다. 남동시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西溪 李鍾弼, 燕巖 朴趾源, 洪漪등으로 沈能淑과는 나이 차이가 많았는데 沈能淑은 주로 노성한 문인들과 교우관계를 가졌다. 沈能淑은 어려서는 명성을 얻은 선배들만 교유하다가 이십대 중반이 되어서 동년배들과 어울렸다.¹⁶⁾

중년에 이르자 沈能淑은 세도가인 豊壤 趙氏 가문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다. 그들과 어울려 다니며 활발하게 교유를 하였고 그의 나이 48세에 北海 趙鍾永의 천거로 1832~1835년에 전라도 泰仁 縣監의 관직에 나갔다. 그의 말년에 대해서는 洪翰周의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러나 이따금 술을 마시면 간혹 실언을 하였고 말이 허풍에 가까워 이 때문에 친구들이 점점 그를 멀리하게 되었다. 게다가 젊은 날에 친하게 왕래하던 명사들이 훗날 대부분 현달하여 공경의 지위에 오르면서도 돌아보지 않아 소남의 이름은 날로 보잘것없이 되었고, 만년에는 낙척하여 무료한 세월을 보냈다. 중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음직으로 감역이 되었고, 관직이 泰仁 縣監에 그쳤다. 마침내 일을 그르치고 집에 돌아가 불평을 머금다가 생을 마치니 나이 겨우 60세였다.¹⁷⁾

16) 강혜선, 「沈能淑 산문의 소품적 성향에 대한 연구」, 『한국고전연구』 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3 p. 161.

17) 洪翰周, 『智水拈筆』, 아세아문화사, 1984, p.447. 然往往有酒間失言, 淡近浮夸, 故朋知稍稍厭之, 且少日微逐之名士, 後多貴顯位公卿, 而不顧小楠之名, 日蹙晚益濩落無聊, 中歲始蔭仕監役 官止泰仁縣監, 竟敗歸家食, 悒悒而卒.

어려서부터 문재를 겸비하고 문화의 중심에 있었던 沈能淑은 말년에는 외롭게 보냈다. 술을 마시면 실언과 허풍을 떨어 사람들과 점점 소원해졌다. 또 교유하던 명사들은 현달하였으나 沈能淑은 늦게 출사한 관직도 여의치 않았다. 결국 무료한 세월을 보내며 우울하게 지내다가 그의 나의 60세 인생을 마감하였다.

Ⅲ. 遊興 樣相과 敘述의 特徵

이번 장에서는 논문의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 유흥과 놀이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논의를 전개하기 위한 방법은 『玉樹記』에서 유흥이 잘 드러난 부분을 뽑아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장편소설의 특성상 각 장회가 독립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흥이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서투 놀이와 모의 전쟁 놀이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유흥이 나타나는 장면에 어떤 서사적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1. 놀이와 遊興

『玉樹記』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남녀의 결연담이라고 볼 수 있다.¹⁸⁾ 이것은 남윤원이 한문본 『玉樹記』를 국문본으로 번역하고 붙인 발문에서 살펴볼 수 있다. 남윤원은 국문본 『玉樹記』의 발문에서 ‘공이 문장과 기계와 절조가 탁월하여 율학과 병법과 명문가 자제들의 특별한 재학과 규방 처녀의 곡진한 정사’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고 하였다.¹⁹⁾ 그 중에서도 『옥수기』 전면에서 드러난 중심 사건은 ‘남녀의 결연’이다. 남녀와 결연하는 모습은 『玉樹記』에서 총 20번 등장한다. 결연을 하는 주체는 4명의 주요 남성들이며 이 인물들의 결연담이 반복되고 있다.²⁰⁾

18) 김종철은 「심능숙의 <玉樹記>」, 소재영, 『古小說史의 諸問題 : 省吾蘇在教授 還曆紀念論叢』, 집문당, 1993, p.822~833에서 옥수기의 상당 부분이 남녀의 결연담으로 이루어졌다는 논의는 김종철에 의해서도 지적되었다. 그는 옥수기에 나타난 결연담의 의미를 혼사장애담, 낭만적인 애정결연담, 주체적인 애정 실현이라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19) 沈能淑, 『玉樹記』 1, 고려서림, 1988. “... 공이 문장과 기절이 탁나호오스 율학과 병법이시며 명문 공주의 특별한 직학과 규방지녀의 곡진한 정사를 돈세은스와 심궁한녀에게 소기하며 ...”

20) 嘉有晋, 嘉有謙, 汪信, 嘉有成, 의 결연담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고, 나머지 인물들은 ‘~와 ~가 결연하였다’ 정도로 요약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玉樹記』에 서술된 20번의 결연을 회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1. 옥수기에 서술된 결연담

결연인물 회	가유진	가유겸	왕신	가유함	그 외
1	화려소와 정혼				가남-경맹업
2					
3	두홍앵				
4	설강운				
5					
6	진월아				
7	왕여란				
8	화려소 운아				가유승-구소저 화혼-탕기의 누이
9	홍교	파릉공주		성소저	
10					
11	백룡자매		가혜영		양씨-두경 진규-가단영
12			임소저		
13					두흙-가유진의 딸
14				녹엽	

『玉樹記』를 바탕으로 한 선행 연구도 남녀의 결연담의 의미를 밝히는 것에 집중되었고, 『玉樹記』에서 유쾌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놀이와 유흥의 양상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전성운과 김경미도 지적하였듯이 가유진 형제의 결연 과정이 작품 전체에 걸쳐 반복되고 있고, 서루에서의 놀이와 모의전쟁 놀이, 임소저 시비 홍아의 검술 구경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²¹⁾ 『玉樹記』에는 남녀의 결연을 중심으로 한 사건이 전면에 드러나 있지만 이것 외에도 유흥을 즐기는 부분의 비중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옥

21) 김경미, 앞의 논문, 2004, p.287.

수기에 나타나는 놀이와 유흥이 어떻게 형상화 되어 있는지를 분석한다면 옥수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玉樹記』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봤을 때 상층사대부의 세계관을 담고 있다는 점, 결연에 혼사 장애가 있다는 점, 유가적 이념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 등에 있어서는 과거의 가문소설 및 별열소설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작품 장면에서 유흥을 형상화하는데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유흥을 즐기는 모습이 다른 작품들에 비해 강화 되어 작품 전반에 드러나고 있으며,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 유쾌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소설과 비교했을 때 유흥이 강화되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玉樹記』에 자유롭고 적극적인 결연 양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놀이가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玉樹記』에서 중요한 사건은 결연 과정의 반복 외에도 놀이가 사건이 되어 유흥의 양상과 유희를 즐기는 모습이다. 작품의 분량을 살펴보았을 때도 『玉樹記』 3, 4, 5, 10회에 유희 장면이 거듭 전개되며, 전체 14회의 분량 중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유흥을 즐기는 양상도 다채롭게 짜여 있다. 그리고 장편소설의 특성으로 각 장면이 어느 정도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흥과 놀이가 드러나는 회만 뽑았다.

따라서 본고는 서루 놀이와 모의전쟁에서 유흥 양상이 잘 드러나므로 이 두 양상에 초점을 맞추고 여타 유흥의 장면을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詩文을 통한 遊興

『玉樹記』에서 가유진은 詩에 뛰어난 인물로 묘사된다. 그리고 그의 詩材로 인해 두홍앵, 설강운과 결연하는 매개체가 된다. 그리고 시 짓기를 통해서 가유진의 풍류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이것은 詩文 놀이 단독적으로 나타

나는 것이 아니라 여행과 음주하는 상황을 동반하여 함께 드러난다.

정선희는 ‘놀이’라는 것은 일상생활과는 달리 어떤 특별한 시공간에서 그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긴장과 즐거움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를 지닌다’ 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놀이에 잡담, 수다, 여흥, 여행, 시합, 연주 등을 포함시켜 그 의미를 넓게 보았다.²²⁾ 이 의미를 단초로 하여 넓은 의미의 놀이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玉樹記』의 주인공이 처음 행하는 놀이 장면은 가유진 형제들이 외할아버지 경상서의 회갑연에 참석하는 길에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볼 수 있다. 명승을 찾아 둘러보고, 맛있는 술이 있는 곳을 찾아가 술을 맛보며 즐거워한다. 한 가지 놀이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행’과 ‘음주’라는 두 가지로 유흥을 즐긴다. 원문을 통해 살펴보겠다.

㉠소경이 두 형제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金陵이 천하명승이라고 들었다. 지금 壽辰이 아직 남았으니 어찌 길을 돌아 한 번 놀지 아니하리오.”라고 하였다. 두 형제가 기분 좋게 따라서 金陵을 향해서 가는데 산을 평론하고 물을 담론하니 行役의 수고로움을 돈연히 잊었다. ㉡하루는 우연히 술집의 작은 누각에서 쉬고 있는데 여러 행인들이 모두 술을 사서 마시며 서로 이야기하며 말하기를 “오늘 낮에 秦淮를 지나면 한 번 취하지 않는 것이 불가하다”라고 하였다. 소경이 묻기를 “秦淮의 술은 모두 품질이 좋은가?”라고 하니 행인이 이르기를 “동루의 술이 매우 좋고, 서루에도 술이 있으나 주인이 가장 알뜰합니다.”라 하였다. … 가게 주인이 말하였다. “서루의 술은 고사하고 지금은 이 곳 지나는 길에 서쪽 주변 燕子磯 아래에 두사인의 집에 포도주를 빚어 술의 빛깔이 곱고 맛이 기이하니 다만 이근처의 좋은 맛일 뿐 아니라 바야흐로 천리안에서

22) 정선희, 『국문장편 고전소설의 인물론과 생활문화』, 보고사, 2012, p.268 참조.

이 술만 한 것이 없습니다.” 가유진이 혼쾌히 떠나고자 하니 가게 주인이 말하기를 “공자는 가도 얻어먹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가유겸이 “술과는 집은 돈이 있으면 모름지기 같 것인데 어찌하여 가도 얻지 못합니까?” 라고 물었다. 가게 주인이 말하였다. “두사인의 집에는上色酒와 下色酒 두 가지의 술이 있는데, 만일 술 사먹는 사람이 좋은 문장이 있으면 더불어 담론하여 그 값을 돌아보지 않고서上色酒를 대접하고 그렇지 않으면 下色酒를 팝니다. 내가 보기에 공자는 나이도 어리고 만약 시문을 말한다하여도 한 개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니 도리어 하품의 맛없는 술 한 잔을 마시게 될테니 우리 가게에서 是非없는 술을 사서 마시는 것만 못할 것이라.” 유진이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나 소경이 만약 글로써 술을 산다면 포도주는 말할 것도 없고 비록 마고선녀의 천일주라도 응할 겨를이 없을 것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말을 달려 두사인의 집을 찾아가니 행인들이 행화나무가 많은 곳이라고 알려주었다.²³⁾

㉠은 외할아버지 경상서의 회갑연에 곧장 가지 않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유진의 제안에 따라 명승인 금릉으로 향한다. 두 형제들도 금릉에서 놀기 위해 형의 말을 따라 혼쾌히 따라간다. 금릉을 찾아 가는 길에 산

23) 장효현 외 4인, 『校勘本 韓國漢文小說 家庭家門小說』, 『玉樹記』, 보고사, 2013. 3회, p.221~222. 昭卿謂兩弟曰“吾聞金陵天下名勝. 今壽辰尙遠, 何不枉道一遊?” 二弟欣然而從, 向金陵而 來, 評山談水, 頓忘行役之勞. 一日, 偶憩於酒家小樓, 諸行人皆沽酒而飲, 相與語曰“今年往秦淮, 則不可不一醉.” 昭卿問“秦淮酒皆佳品否?” 行人云“東樓酒甚好, 西樓有酒, 而主人可憎.”… 店人曰“姑舍西樓酒, 今此歷路西邊燕子磯下 有杜舍人家, 釀葡萄酒, 味奇色鮮, 非徒此間尤味, 方千里之內, 無如此酒.” 有晋欣然欲往, 店人曰“杜家有上下二色酒, 若沽酒之人, 有好箇 文章, 則與之談論, 不顧其價, 以上色酒待之, 否則, 以下色酒賣之. 吾看公子年少, 若道詩文, 一箇不字時, 返罰下一盃劣酒, 不如飲店中沒是非之酒.” 有晋大笑曰“我昭卿, 若以文買酒, 莫道葡萄酒, 雖麻姑千日酒, 酬應不暇.” 命其家僮, 筭還店酒. 遂驅驢, 訪杜舍人家, 行人指示杏花多處. 본고는 고려서림에서 출판한 『옥수기』 1.2 권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소에서 교감한 『교감본 한국한문소설 가정가문소설』의 『玉樹記』를 같이 읽었다. 두 자료에 큰 차이는 없었으며 교감을 본 원문이 조금 더 정확할 것이라 생각하여 『교감본 한국한문소설 가정가문소설』의 『玉樹記』 주 자료로 사용한다. 앞으로 『玉樹記』는 서지사항을 생략하고 『玉樹記』로 표시한 후 회와 페이지만 밝히기로 한다.

수에 대하여 답론하니 여행의 고단함이 사라진다고 언급한다. 이 장면에서 여행을 하는 즐거움이 보인다.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감상하고 이 풍경을 형제들끼리 답론하고 즐기는 사이 여행의 피로가 사라진다. 여행을 하는 공간에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즐거움이 있는 행동을 하므로 광의의 놀이에 포함 된다.

㉠은 맛있는 술을 먹기 위해 길을 떠나는 두사인의 집으로 길을 떠나는 내용으로 광의의 놀이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금릉을 유람하고 우연히 술집에서 머물고 있는 가유진 형제들은 진회의 술이 맛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동루에 사는 두사인의 포도주와 서루에 있는 술이 맛있는데 그 중에서도 두사인의 포도주가 진회 안에서 제일 맛있다는 것을 듣고는 길을 떠나려한다. 가게 주인이 좋은 문장이 아니면 얻어먹지도 못할 것이라며 만류하지만 가유진은 자신의 재주면 충분하다고 믿고 동생들과 두사인의 집을 찾아 간다.

가유진은 명승을 유람 후 우연히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두사인의 집으로 떠날 것을 제안하고 좋은 술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 그 이유는 자신의 재능에 대한 자부심 때문이다. 가유진이 문장을 잘 짓는 것은 옥수기 1회에 언급되어 있다.²⁴⁾ 시재가 뛰어난 장점으로 두사인의 맛있는 포도주를 먹겠다는 풍류적 면모가 강한 제안을 한다. 이 모습에서 가유진의 호방하고 풍류적인 태도가 보인다. 자신의 재능에 대한 긍지로 거리낌없이 풍류를 추구하는 모습에서 유흥을 즐기는 인물의 형상을 볼 수 있다.

2) 對話를 통한 遊興

『玉樹記』에서 드러나는 놀이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웃음을

24) 『玉樹記』, 3회, p.198. 有晋尤超邁絕等, 授書則十行俱下, 三教九流, 各得其妙, 膂力過人, 文章卓越.

유발하는 놀이다. 웃음은 인물들의 ‘속임수’를 통해 주로 나타나는데 서로 속이고 되속이는 행위를 남녀가 자발적으로 즐기며 밝고 유쾌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이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웃음은 해학적인 웃음이 아니라 재미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웃음이다.

속임수가 나타나는 장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두 홍앵의 집에서 가유진이 여장을 하여 설강운을 속이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 玉壺閣에서 설강운이 귀신으로 꾸미고 속인 사람들 앞에 나타나 되속이는 것이다. 속이고 되속이는 부분의 즐거움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유흥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표2. 가유진과 두홍앵이 설강운을 속이는 서사 단락의 순서

<속이기>
① 두홍앵이 가유진과 설강운을 댗어주기 위해 계교를 편다.
② 두홍앵이 서루 미인 설강운을 초대하는 편지를 보내고, 가유진을 여복시키고 시비인 칠낭을 남복시켜 가유진으로 속이기로 한다.
③ 두홍앵은 설강운에게 서주곡을 지은 가유진의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하며 그의 외모가 추하다며 불평을 하고, 여복으로 환착한 가유진을 소군이라 소개하며 3명이서 친구가 된다.
④ 설강운은 칠낭이 변장한 소경을 보고 용모는 추하나 재모가 뛰어나 그를 따르고자 결심 한다.
⑤ 소군이 환태신약을 만들 수 있다하여 칠낭의 모습을 바꿔준다. 낮에는 칠낭이 변한 가유진의 모습을 하고 밤에는 가유진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설강운과 동침을 한다.
⑥ 낮에 칠낭이 변한 가유진을 보니 귀인의 재모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의심을 하던 중 설강운의 시비인 운아의 말을 전해듣고 홍앵의 방을 엿보다 자신이 속았음을 알게 되고 다시 되갚으리라 결심한다.

표3. 설강운이 가유진과 두홍앵을 속이는 서사 단락의 순서

<되속이기>
① 자신이 속았음을 깨달은 설강운은 시비 운선과 복수할 계획을 세운다.
② 설강운은 운선에게 계교를 알려주고 자신은 서루로 돌아가 숨는다.
③ 운선은 가유승과 가유겸의 처소 밖에서 설강운의 목소리로 울며 이별을 고한다. 그리고 두홍앵의 처소로 찾아가 설강운을 찾으러 왔다고 고하며 간밤의 꿈이 뒤숭숭하다며 강운이 죽은 것 같다며 걱정한다.
④ 가유겸과 가유승 형제는 설강운의 방에서 자결하려는 편지를 발견한다.
⑤ 사람들이 강가에 가니 시비 운선이 던진 물건이 있는 것을 보고 자결했다고 생각하며 자책한다.
⑥ 다음날 강가에서 제를 지낸 후 돌아오니 아황과 여영이 하룻밤의 연을 맺기위해 돌아왔다며 귀신이 된 설강운이 나타난다.
⑦ 자신의 계교에 속은 것을 알린다.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속이는 서사는 고전소설 속에서 남녀가 결연하는 서사에서 자주 서술되는 유형이다. 주로 결연을 맺을 여자 주인공의 성품을 알아보기 위해 남자주인공이 신분을 은닉하여 시험한다. 속이는 과정에서 단지 여성의 박식한 면모, 뛰어난 재주와 인품을 시험할 뿐이지 속이는 자의 즐거움은 없다. 그러나 『玉樹記』에서는 속임이 일종의 놀이이자 유희이기 때문에 즐거움이 동반된다. 속임을 행하는 과정에서 악의적인 목적은 없으며 단순히 유희를 즐기는데 이것은 두홍앵과 가유진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소경이 웃으며 말하였다. “남자는 나에게 미인계를 행하러하는 것인가?”
 홍앵이 말하였다. “이것 또한 방중 사람들의 풍류스러운 일이니 무슨 해
 가 있겠습니까? 또 두 도련님께 이렇게 이렇게 하게 하고 따로 밖에다
 그림자를 설치하여 미인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한다면 어찌
 묘하지 않겠습니까?...”²⁵⁾

이 장면에서 보듯이 설강운을 속이는 행위는 풍류스러운 일이지 해가 되는
 일은 아니며 오히려 계교를 통해 미인을 얻게 된다면 묘하고 색다르지 않겠
 나며 말하고 있다. 계교를 통해 곤란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보이지 않으며
 하나의 유희로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장면은 설강운을 속이기 위해 두홍앵이 계책을 꾸미는 장면이다.

㉠소경은 드디어 남자와 미인계를 상의하였는데 홍앵이 이에 채전을
 펼쳐 글을 쓰니 서루미인에게 채교(綵轎)를 보내어 오기를 청하였다.
 편지에서 말하기를 ... “지금 기이한 일이 있으니 실로 우리 두 사람이
 따르기를 원하는 바이라. 비록 주견이 이미 있다하나 남자의 총명한
 시감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요사이에 한 남자를 얻었는데 재주와 용
 모가 우리 무리의 아래에 있지 않고 뜻과 원함이 또한 같은데 이것은
 백년고락과 관련이 있으니 하루의 해후를 아끼지 마십시오. 이에 보배
 로운 수레를 보내니 오로지 향기로운 티끌을 기다리겠습니다.”²⁶⁾

㉡홍앵은 즉시 유모인 변씨의 자식인 칠낭을 불러서 소경이 전날에

25) 『玉樹記』, 3회, p.233. 昭卿笑曰“娘子欲我行美人計耶?” 紅鶯曰“此亦房中風流事, 何傷乎? 且使兩位
 少郎, 如此如此, 另設一影字於外, 使美人入於套中, 豈不妙哉?...”

26) 『玉樹記』, 4회, p.236. 昭卿遂與娘子, 相議美人計, 紅鶯乃拂彩牋作書, 請西樓美人, 兼送綵轎, 書曰:
 ... 今日奇事, 實吾二人所願從. 雖曰已有主見, 未知娘子慧鑑. 且近日, 得一娘子, 才兒不在我輩之下, 志願
 亦同, 此係百年苦樂, 勿斬一日邂逅. 茲送寶車, 專俟香塵.

입었던 옷을 입혀 남자로 꾸몄다. … 남자가 여차여차 부탁하였고 몇 개의 자구를 가르쳐 외우게 하고는 외당에 머무르게 하였다.²⁷⁾

㉔양공자와 칠낭은 별당에서 거하고 소경 또한 어린 남자의 옷으로 환착하고서 그 낮에 분을 바르고 입술에 연지 찍었으며 얇은 화장을 하고 가벼운 패물을 차니 의상이 산뜻하고 고왔다.²⁸⁾

㉑에서 가유진은 두홍앵에게 설강운을 피어낼 계책을 상의한다. 두홍앵은 설강운이 시재와 문재가 뛰어난 남성을 따르기 위해 스스로 기생이 되어 서루를 세워 지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가유진이 쓴 ‘서주곡’으로 흥미를 유도하는데 평소 뛰어난 시감이 있는 설강운에게 ‘서주곡’의 시평을 부탁한다. 그리고 채주와 용모가 뛰어난 새로운 남자가 있으니 함께 즐기고 싶 다며 설강운이 발걸음 할 것을 청한다.

㉒과 ㉓에서는 가유진은 ‘소군’이라는 가상의 인물로 여장을 하고, 두홍앵의 시비로 추녀인 칠낭이 ‘가짜 가유진’ 행세를 하여 설강운을 속일 준비를 한다.

두홍앵은 설강운과 함께 시재가 뛰어난 남성을 만나면 결연을 하기로 약속을 한 사이이다. 그런 두홍앵이 시를 잘 짓는 가유진을 만나 먼저 인연을 맺게 되고 가유진에게 설강운을 추천하였다. 그러나 두홍앵은 그냥 소개하지 않고 풍류적인 제안을 한다. 가유진이 여장을 하고 두홍앵의 시비 칠낭이 가유진으로 변장하여 설강운과 대면하려는 속임수를 낸다. 이에 풍류적인 성격을 가진 가유진도 속이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다수의 인물이 한 사람을 속이는 것을 즐기는 일종의 유희의 양상을 보인다.

27) 『玉樹記』, 4회, p.236. 紅鶯卽召乳媪卞氏之弟七娘, 以昭卿前日所着之服, 換裝男子. … 娘子囑以如此如此, 教誦幾箇字句, 置之外堂.

28) 『玉樹記』, 4회, p.237. 兩公子與七娘, 出居別堂, 昭卿亦換裝小娘子服色, 粉其面, 而朱其唇, 淡粧輕珮, 衣裳鮮鮮.

이러한 양상은 가유진이 환태신방을 먹고 모습이 변하는 부분에서도 나타난다.

설강운은 시로써 지아비를 찾는 인물이다. 칠냥이 가유진으로 변장하여 추한 외모와 어눌한 말투에도 불구하고 가유진의 서주곡을 보고 혼인하기로 결심한다.²⁹⁾ 이러한 모습에서 다수의 인물들은 설강운에게 가유진의 모습을 밤에만 원하는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며 또 속임수를 쓴다.

㉠소군이 말하였다. “... 제가 마침 신통한 술법을 천태산 요도사에게 배웠는데 미운 모양으로 하여금 고운 외모를 만들어주니 이름이 ‘환태신방’입니다. 이것을 한 번 먹으면 미남으로 변하니 드디어 홀로 밤을 즐겼던 것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이 약은 불과 밤에만 시험함이고, 낮에는 시험할 수 없습니다.”

㉡소군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오늘밤에 마땅히 환태신방을 만들려하는데 남자는 가랑이 누구와 비슷했으면 좋겠습니까? 소원대로 시험해보겠습니다.” 미인이 말하였다. “이미 그 사람을 따르려하는데 어찌 그 외모를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남자의 신술이 심히 기이하여 내 마음에서 한 번 그 진위를 시험해보고 싶습니다. 가랑의 외모가 모름지기 소군과 같다면 무엇을 근심하겠습니까?”³⁰⁾

29) 설강운은 가유진이 지은 서주곡을 보고 대귀영웅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를 따르기로 결심한다. 『玉樹記』, 4회, p.248~249. ...再見西州曲, 默誦數行, 大言曰“必是大貴英雄. 昔日, 鳳雛先生, 蘊天地之大略, 見甚醜拙, 吳大帝見而不用, 復爲昭烈之用, 至今傳爲‘伏龍鳳雛’, 豈取外兒哉? 吾聞聖人不相, 殆嘉郎之謂歟! 吾決意從之.[서주곡을 다시 보고 가만히 몇 행을 외우더니 크게 말하였다. “반드시 대귀영웅이 될 것이다. 옛적에 鳳雛선생(방통)이 천지간에 지략으로 이름을 쌓았으나 외모가 심히 추졸하여 吳大帝(손권)에게 등용되지 못하였는데 다시 昭烈皇帝(유비)에게 등용되어 지금까지 전해지기를 伏龍鳳雛¹⁾라 하니 어찌 외모로써 취하겠는가. 내가 들으니 성인은 상을 보지 않는다고 하니 자못 가랑을 두고 이르는 것이구나! 내 굳게 마음먹고 그를 따르겠다.]”

30) 『玉樹記』, 4회, p.249. 昭君曰“然則今夜當製換胎神方, 娘子欲嘉郎之誰似耶? 如願試之.” 美人曰“既從其人, 何嫌其兒? 然娘子神術, 甚是奇事, 吾則一試眞僞. 嘉郎之兒, 須如昭君, 則何恨乎?”

㉠에서는 가유진이 변장한 소군이 자신이 천태산 요도사에게 환태신방을 배웠다고 말한다. 환태신방은 사람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술법인데 이것은 밤에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가유진이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 설강운을 만나기 위해 도술을 부릴 수 있다고 설강운을 속이는 것이다.

㉡에서는 설강운이 가유진의 모습을 바꿔주겠다는 소군의 제안을 허락하는 부분이다. 설강운은 자신은 이미 사내를 따르기로 했으니 그 겉모습은 상관 없이 없지만 소군의 술법의 진위가 궁금하다며 바꿔주기를 원한다.

『玉樹記』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유쾌하게 놀이를 즐긴다. 자칫하면 가유진이 여장한 것을 들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태신방을 먹고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행동을 한다. 그리고 설강운과 동침을 하게 된다. 이 장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쾌락적이고 풍류적인 가유진의 인물 형상이 나타난다.

두 번째로 속이는 것은 속임을 당했던 설강운이 다시 가유진과 두홍앵을 되속이는 것이다. 설강운은 가유진과 동침을 하고 낮이 돼서 다시 보니 그에게서 귀인의 재모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의심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가유진을 시험하기 위해 催粧詩 짓는 것을 부탁하지만 칠낭이 변장한 인물이기 때문에 소경은 눈만 움직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주위에 있던 양공자들이 밤에 다시 지어달라고 급하게 마무리하는 모습에서 더더욱 의심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날 저녁 강운의 시비인 운선에게 은밀히 소군을 염탐한 후 자신이 속은 것을 알게 된다. 아래 인용문은 설강운이 속았던 사실을 깨닫고 난 후의 모습이다.

(강운이)또 웃으면서 말하였다. “...이것은 모두 두낭자가 한 것이라 내 반드시 갚으리라.”³¹⁾

설강운은 자신이 속았던 사실을 알았지만 분노하고 화내는 기색이 없다.

31) 『玉樹記』, 5회, p.256. 又笑曰 “...此都是杜娘子之作踊, 吾必報之.”

오히려 웃으면서 자신을 속인 인물들을 다시 되속일것이라 말한다. 작중 인물 자체가 상황을 즐기고 있는 셈이다. 『玉樹記』의 등장인물들이 재치와 유머가 있고 자신들 스스로 그 상황을 즐기므로써 유희를 즐기는 것이다.

설강운은 자신이 속은 것을 알고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있다가 귀신이 된 것처럼 꾸며 속인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 귀신이 되어 사랑하는 연인 앞에 나타나는 것은 전기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법이다. 귀신이 되어 사랑하는 사람 앞에 나타나 그들의 절절한 사랑을 이루려하는 것에 비해 『玉樹記』에서는 그 상황을 스스로 즐기고 있다. 귀신 분장을 통해 유희를 즐기며 남녀 간의 사랑이 희화화 된다.

다음 대화는 설강운이 투신한 연자기 근처에서 가유진 일행들이 제사를 지내며 설강운의 혼을 위로하는 부분이다.

소경과 흥앵이 눈물을 흘리며 친히 제물을 배풀고 크게 소리내며 통곡하니 숙형(유겸) 또한 슬퍼서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중고(유승)가 괴로워하며 눈물을 그칠 것을 권하며 숙형에게 돌아보며 말하였다. “형과 남자의 울음은 실로 인정에서 나온 것이지만 너에게 있어서는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 훗날 네가 만약 미인을 잃는다면 반드시 울다가 죽겠구나.” 숙형이 말하였다. “내가 그녀의 재주와 지식을 특별히 좋아하여 이같이 울지 않을 수 없어서 나의 마음을 내보내는 것뿐입니다. 형 또한 어젯밤의 울음이 매우 지나쳤는데 하룻밤사이에 눈물은 떠나보내고 웃음이 돌아왔으니 형은 만약 훗날에 처첩 중에 미인을 잃으면 성복을 입고서 슬픔을 잊을 테니 박정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중고가 흘겨보며 말하였다. “큰형과 남자가 이처럼 슬퍼하니 너를 풀어주려고 한 것이니 책망하려 한 것은 아니다. 네가 오늘 밤에도 울고, 또 내일 밤에도 울고, 밤마다 크게 울어도 나는 금하지 않겠다.” 숙형이 웃

으면서 일어났다. 이 때 칠낭이 운선의 꿈을 두려워하여 그 목숨을 급히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하니 머리를 조아리며 수없이 절을 올려 피가 나는 지경에 이르렀다. 숙형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말하였다. “모두 칠낭의 죄이니 낭자께서 목은 원한을 씻고자하면 칠낭을 대대로 여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빨리 잡아가십시오.” 칠낭이 연달아 조아리고 애걸하면서 말하였다. “소공자의 말은 삼가 듣지 마십시오, 삼가 듣지 마십시오.” 숙형이 비웃음을 참지 못하였고 마침내 제사를 마치고 돌아갔다.³²⁾

위의 인용문은 가유진 일행이 燕子磯 아래에서 자결한 설강운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다. 슬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유승과 가유겸, 가유겸과 칠낭의 대화로 인해 슬픔 감정이 반감된다. 가유승은 슬프게 우는 가유겸에게 우는 것이 지나치고 편잔을 주고 가유겸은 그런 형에게 미래에 부인을 잃게 되면 금방 잊을 것이라며 박정한 사람이라며 놀린다. 형과의 대화를 마친 가유겸은 칠낭이 두려워하며 열심히 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얼른 잡아가라고 우스갯소리를 한다. 슬픈 상황 속에서 농담을 하며 웃음으로 승화시키며 유쾌한 분위기가 전면에 드러나고 있다.

앞의 논의들을 종합하면 『玉樹記』의 주인공들은 유쾌하고 유머러스한 인물들이다. 속이기와 되속이는 계교를 쓰지만 다른 사람을 곤란에 빠뜨리는 목적이 아니다. 작중 인물들 자체가 풍류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유쾌한 방식으로 계교를 진행하고 풀어내고 있다. 『玉樹記』의 이러한 모습은 비판적이고 조롱하는 대화로 유발되는 웃음이 아니라 쾌락적인 세계관에

32) 『玉樹記』, 5회, p.263. 昭卿與紅鶯流淚, 親設祭物, 放聲大哭, 叔亨亦悲不能止哭. 仲高苦苦勸止, 願謂叔亨曰“兄長與娘子之哭, 實出於人情, 至於汝, 無是太過否? 他日汝若喪美人, 必欲哭死耶?” 叔亨曰“吾特愛憐其才識, 不得不如是一哭, 泄我之懷耳. 兄亦昨夜之哭太過, 一夜之間, 淚去笑回, 兄若他日, 妻妾間喪美人, 不及成服而忘其悲, 難免薄倖之名.” 仲高睨視曰“大哥與娘子, 如是哀傷, 欲汝之勸解, 而責之否, 則汝哭今夜, 又哭明夜, 夜夜大哭, 吾不禁.” 叔亨亦笑而起. 此時, 七娘害怕雲仙之夢, 恐奪其命之速, 叩頭百拜, 至於出血. 叔亨旁祝曰“都是七娘之罪, 娘子欲雪宿恨, 使七娘世世輪生女子, 速速押去.” 七娘連連叩乞曰“小公子之言, 慎勿聽.” 叔亨暗笑不住, 遂撤祭而歸.

바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옥수기의 웃음은 유쾌하다.

3) 겨루기를 통한 遊興

황후와 여러 부인들이 모의전쟁을 하는 부분은 『玉樹記』 10회에서 묘사된다. 엄답과의 전쟁이 끝난 후 황후가 가유진에게 진부인과 백룡 자매를 보고자 입궐하도록 명을 내린다. 그러자 진부인은 여러 부인과 교방기녀 천명을 거느려 軍禮로써 배알하게 한다.

황후는 진부인과 백룡공주를 보고 싶어서 북평왕(가유진)에게 명령을 내렸다. 세 부인과 네 남자, 嘉氏의 여러 부인으로 하여금 明朝에 입궁하라 하시고 또 별도로 진부인에게 칙서를 내려 양씨, 화혼의 부인, 위소의 처, 수장의 사가부인들에게 이르렀고 백룡공주 일행을 거느려 교방기녀 천명에게 명령하고 진부인이 통솔하게 하며, 좌우로 鼓吹와 旌節을 진열하여 군례로써 長秋宮에 진알하라 하셨다. 크게 특별한 잔치를 베풀고 내외의 황친의 부인을 다 부르시니 이 날은 六宮이 크게 움직이는 듯하였다.³³⁾

위의 인용문은 진부인이 여러 부인들과 백룡공주일행, 교방기녀를 이끌고 군례를 행하는 모습으로 성대하고 화려한 장관을 연출한다. 앞으로 전개될 모의전쟁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여 즐길 것을 짐작하게 한다.

이 후 부인들은 모의전쟁을 벌여 유쾌하게 즐긴다. 실제 전쟁 상황처럼 위엄을 갖추고 엄숙한 분위기가 아니며 서로 설전을 벌이고 웃음을 터뜨린다.

33) 『玉樹記』, 10회, p.359. 皇后欲見晉夫人及胡公主, 下令北平王, 使三夫人, 四娘子, 嘉氏諸夫人, 明朝入宮, 又別勅晉夫人與梁氏及花渾夫人, 魏召妻及爲首將士家夫人, 率白龍兩公主一行, 命教坊女千人, 護晉夫人, 列左右鼓吹旌節, 以軍禮, 進謁於長秋宮. 乃大設宴饗, 悉召內外皇親家夫人, 是日, 六宮聳動.

이에 양부인은 위엄을 갖추어 말하기를 자리를 함부로 떠나지 말고, 함부로 떠들고 웃지도 말고, 크건 작건 놀라서는 안 된다고 이르며 이를 어기면 군법으로 다스리겠다고 분위기를 잡는다. 이렇게 엄숙한 것 같았던 분위기는 설강운에 의해 웃음이 유발된다.

설강운은 본래 웃음 병이 있었다. 양씨가 令旗를 떠들썩하게 지휘하는 모습이 마치 진지하게 전쟁에 임하는 모습을 같았고, 또 양씨가 기상을 스스로 만족해하고 행동을 자중하고 있었다. 강운이 인내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소리 내어 웃으니 궁녀들이 따라 웃었고 황후와 낭랑들도 웃지 않을 수 없었다.³⁴⁾

본래 웃음이 많은 설강운이 양씨가 진지하게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임하자 견디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리는 상황이다. 이에 궁녀들도 모두 웃고 황후까지 웃으면서 한바탕 웃음판이 벌어진다.

이후 황후는 진부인과 백룡 자매의 뛰어난 무예 실력을 보고자 상림원에서 편을 나누어 모의전쟁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 황제와 황후 모두 진부인이 이오의 물리친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뛰어난 능력을 궁금해 하기 때문이다. 진부인의 능력에 관한 언급은 뒷부분에서 하기로 한다. 먼저 진부인과 백룡 자매의 대결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드디어 진부인과 파릉공주에게 명하여 각각 上林園에 진을 배치하고 양씨에게 특별히 준마 한 필을 사사하였다. 창을 숨으로 씌워 분을 칠하였고, 삼십 합으로 제한을 두었는데 창의 粉点이 많은가 적은가를 따져서 승부를 가리게 하셨다. 진부인이 공주와 같이 먼저 상림원에 이르러 궁

34) 『玉樹記』, 10회, p.363. 薛絳雲, 本有笑癖. 見梁氏以令旗紛紛指揮, 有若眞箇臨陣之狀, 意氣自得, 舉止自重. 絳雲忍耐不得一聲笑, 宮女皆笑, 雖皇后娘娘, 不得不笑.

녀와 교방미인 각 삼천 명을 거느려 양진으로 나누었다. 公主는 동진을 맡았고, 진부인은 서진을 맡았다. 공주는 백룡자매를 거느렸고, 진부인은 양씨를 거느렸는데 양씨가 화혼의 처인 탕씨가 칼을 잘 쓴다고 천거하니 진부인이 크게 기뻐하여 戰馬 한필을 주었다. 임금과 황후와 여러 부인과 낭자들이 더불어 상림에 도착하였는데 구름 장막을 높이 설치하여 무예를 관람하였다.³⁵⁾

위의 장면은 대결을 시작하기 전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상림원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파릉공주, 백룡자매, 진부인, 양씨 4명을 주축으로 전쟁을 준비한다. 파릉공주와 백룡자매가 동진이고 진부인과 양씨가 서진으로 편을 나누어 대결을 기다리고 있다. 전쟁의 규칙을 정하고 각자 편을 나누는 모습의 묘사는 전쟁 놀이의 성대함을 짐작할 수 있다.

모의전쟁이 시작되어 서로 대결을 펼치는 모습은 긴장감이 조성된다. 백룡자매는 무예에 뛰어나고, 진부인은 병법과 진에 능하고 양씨는 요술에 뛰어난 인물로 싸우는 장면에서 그 모습이 잘 나타난다.

첫 대결은 백룡자매와 탕씨, 양씨의 대결이다.

진부인이 진에 오르자 징소리가 크게 울렸고 탕씨와 양씨가 따로 말을 타고 나왔다. 파릉공주의 진영에는 고성이가 크게 일어나며 백룡자매가 말을 타고 달려 나와서 陣上에 왕래하니 그 빠르기가 나는 것 같았다. 곧 탕씨를 취하여 한바탕 싸우기를 오래도록하니 탕씨가 기력이 쇠진하여 말을 돌려 돌아갔다. 백룡 紅雪驄을 몰아 한 번에 천리를 가는 듯 수십 보를 쫓아가서 가벼이 팔을 뻗어서 탕씨를 잡아 말에서 떨어뜨렸다. 양

35) 『玉樹記』 10회 p.374. 遂命晋夫人及公主, 各排陣於上林園, 別賜梁氏駿馬一匹, 以綿戈裹粉, 以三十合爲限, 驗其粉点多寡, 以爲勝負. 晋夫人與公主, 先往上林園, 率宮女及教坊美人各三千人, 分爲兩陣. 公主主東陣, 晋夫人主西陣. 公主率白龍姊妹, 晋夫人率梁氏, 梁氏薦花渾妻湯氏善使寶刀, 晋夫人大喜, 又賜戰馬一匹. 上與皇后及諸夫人娘子, 皆至上林, 高設雲幕, 以觀武藝.

씨가 급히 도와주려 하였으나 갑자기 말 한 마리가 마치 새가 앞을 지나는 것처럼 탕씨를 붙잡아 수십 명의 호희들이 둘러싸고 옹호하며 떠났다. 양씨가 자세히 보니 곧 연연 공주가 말을 몰아 (탕씨를) 사로잡아 떠났다. 양씨가 화가 나서 쫓아가니 백룡과 연연이 각각 80호희들을 거느리고 암호를 외치니 등글게 주인을 에워쌌다. 양씨가 말 위에서 작법하고자 하나 천자께서 꺼리고 피하실까봐 두려워 싸움으로는 이길 수 없고 달려도 또 얻을 수 없으니 가루가 창에 비처럼 내렸으며 전포에 흰 점이 무수히 떨어졌다. 파릉공주가 바라보고 있다가 (양씨를) 반드시 사로잡고자하여 친히 궁녀 천여 명을 거느리고 에워싸고 급히 양씨에게 鐵連環을 던졌다. 양씨가 손 쓸 사이도 없이 다시 백룡에게 사로잡혔다.³⁶⁾

이 장면에서는 백룡공주의 활약이 돋보인다. 백룡과 탕씨가 서로 겨루다가 결국 탕씨가 사로잡혔고, 양씨는 싸움에 자신이 없어 요술을 부릴지 고민하다 마찬가지로 백룡에게 포로가 되었다. 놀이의 하나로 모의전쟁을 벌이지만 다들 진지하게 싸움에 임하고 있다. 전쟁의 승기를 잡은 파릉공주는 두 번째로 진부인을 사로잡을 계획을 세운다.

이때 공주는 백룡자매와 호희 백여명 · 궁녀 천여 명을 거느리고 곧바로 진부인의 군대를 범하며 명령하기를 “진부인은 사로잡지 말고 다만 와서 항복하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황상에게 사로잡아 올릴 것이라.”

36) 『玉樹記』 10회 p.374. 晉夫人陣上，鑼聲大振，湯氏與梁氏，分馬而出，公主軍中，鼓聲大作，白龍姊妹，馳馬而出，往來陣上，其疾如飛。直取湯氏，大戰良久，湯氏氣力不加，回馬而走。白龍所騎紅雪驄，日行千里，趕上數十步之內，輕舒玉臂，拿湯氏落馬。梁氏急出來救，忽一騎馬，若飛鳥過前，來奪湯氏，數十胡姬，簇擁而去。梁氏細見之，乃燕然馳馬，奪擒而去。梁氏忿然而趕去，白龍·燕然，各率八十胡姬，一聲暗號，團團圍住。梁氏欲於馬上作法，而恐觸犯天子，戰又不勝，走又不得，粉戟如雨，點打却戰袍。公主望見，必欲擒之，親率千餘人，來圍之，急投鐵連環於梁氏，梁氏措手不及，又爲白龍所獲。

라고 하였다. 여러 궁인이 명령을 받고 반드시 이길 것이라 생각하며 바로 中軍으로 들어갔으나 다만 보건데 문호가 천만 겹이고 음음한 구름이 또한 땅에 가득하여 대면하여도 서로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북소리가 한 번 들리더니 대풍과 모래바람이 일어났다. 공주가 매우 놀라 나오려 해도 나올 수 없었고, 들어가려 해도 분간할 수가 없어 급히 백룡을 부르니 좌우에서 고하였다. “백룡자매는 사람과 말이 줄로 연결되어 이미 사로잡혔고 수하에 남은 것은 겨우 수십여 명의 사람입니다.”

공주가 대경하여 길을 찾아 나왔는데 홀연히 두 여장군이 공주 앞에 서서 말하기를 “진부인께서 공주를 청하십니다.”라고 하였다. 공주가 눈을 들어 보니 곧 양씨와 탕씨였다. 공주가 크게 놀라서 말하였다. “두 사람은 이미 사로잡혔거늘 어찌 여기에 있는가?” 두 사람이 웃으며 말하였다. “부인께서는 공주가 에워쌀 것을 기다려 궁녀 삼십 명으로 하여금 사로잡힌 저를 뺏어왔는데 이제 공주는 어찌 돌아가시겠습니까? 비록 날개가 있더라도 이 진을 날아서 도망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주가 탄식하며 말하였다. “부인은 진실로 신인이다. 이 궁녀를 사용하여 진을 치고 조화로운 것이 이와 같겠는가.”³⁷⁾

파룡공주가 거의 승리할 듯하였으나 상황은 급하게 반전이 일어난다. 진부인이 파룡공주의 생각을 먼저 알아차리고 자신의 진영 안에 들어와 둘러싸기를 기다린 것이다. 파룡공주의 병력이 이곳에 집중될 동안 진부인은 사로잡힌 양씨와 탕씨를 구출한다. 그리고 도술을 부려 백룡자매와 파룡공주를

37) 『玉樹記』 10회 p.375. 時，公主率白龍姊妹及胡姬百餘人・宮女千餘人，直犯晉夫人軍中，令曰“勿擒晉夫人，但使來降。不然，則當獻俘於皇上矣。”諸宮人得令，自謂必勝，直入中軍，但見門戶千萬，陰雲滿地，對面不相見。俄已，一聲鼓角，大風飛沙。公主大驚，欲出不得，欲入不辨，急召白龍，左右告“白龍姊妹，連人帶馬，已爲所擒而去，手下，纔餘數十餘人。”公主大驚，尋路而出，忽兩女將，立公主前曰“夫人請公主。”公主舉目，則乃梁氏・湯氏也。公主大疑曰“兩人俄已被擒，今又在此，何也?”兩人笑曰“夫人待公主之來圍，使宮女三十餘人，奪擒而去，今公主何往? 雖具羽翼，不能飛出此陣矣。”公主歎曰“夫人眞神人也。用此宮女，爲陣而造化，若是耶?”

잡아 상황을 역전시켰다. 이길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승패를 좌우하는 모습에서 재미가 더욱 배가 된다.

모의전쟁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인 양씨와 진소저는 이미 전쟁에서 한 차례 능력을 보였고 그 능력을 인정받은 여성들이다. 진소저의 능력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다. 진소저의 모친은 태몽으로 달이 품속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진소저를 낳았다. 이미 천상의 힘을 부여받아 월등한 능력을 가졌다. 이후 부친 진처사와 함께 천녀동에 은거하면서 병법과 천문지례에 통달한 여성이다. 그녀의 능력은 이오의 반란을 극복하는 역할을 한다.

원사가 전부에게 묻기를 “처사는 자녀가 있는가?”라고 하였다. 전부가 답하기를 “만일 소저가 아니었다면 우리들이 어찌 이곳에 있겠습니까? 우리 소저는 천인입니다. 도적들이도 또한 두려워하여 감히 마을 가까이 오지 못 합니다. 어제 처사가 친히 거민을 거느려 石陣을 동네 어귀에 만드셨는데 시비가 전하는 말을 들으니 소저가 말하기를 ‘오늘 밤 두명의 귀인이 도적에게 쫓겨서 거의 구하지 못하므로 미리 이 진을 설치하여 구원할 것이다’라고 이르더니 내가 보건데 장군의 갑옷과 투구를 몸에 지니고 있으니 이 귀인이 아니십니까?” 38)

위의 인용문은 이오의 난에 가남과 가유진이 이오의 요술에 걸려들 것을 예견하고 미리 진을 설치하여 구해주는 내용이다. 즉, 진소저는 진상을 살펴 미리 앞일을 예측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³⁹⁾ 진소저가 진법에 뛰어나고 그 능력을 펼치는 장면은 화혼을 구하는 장면에서도 나온다. 화혼이 이오를 기습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지만 이오의 처 양씨에게 사로잡히고 만

38) 『玉樹記』 6회 p.281. 元師問於田夫曰“處士有子女耶其?” 田夫曰“若非此箇小姐, 我等豈在此間居住耶? 我小姐眞天人也. 賊人亦怕, 不敢近洞. 昨日, 處士親率居民, 作石陣於洞口, 聞侍婢所傳, 則小姐稱, ‘今日有兩位貴人, 爲賊所追, 幾至不救, 豫下此陣以救之’云. 吾觀將軍甲冑在身, 無乃貴人耶?”

39) 김종철, 앞의 논문, p.58.

다. 양씨가 화혼을 이오에게 데려가던 중 이것을 예측한 진소저는 군사를 준비하여 화혼을 구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양씨는 직접 전쟁에 참여하고 남편인 이오를 보필하는 역할을 한다. 양씨의 도술 능력은 이오와 대결하는 사람들에게 펼친다. 이오에게 대결하는 가남 부자와 화혼을 계략에 걸려들게 하는 인물이고 이미 뛰어난 도술 능력을 보였다. 처음에는 이오의 처로서 활약했고 뒤에는 항복하여 진소저의 옆에서 보필하는 여성이다.

모의전쟁에서는 이미 전쟁에서 능력을 보였고 인정받은 여성 인물들이 유희의 맥락에서 능력을 다시 보이고 있다. 전쟁이라는 위급한 상황을 다시 사용하기 위한 훈련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연습이 아닌 단지 유희의 맥락에서 진법과 도술을 사용한다.

위의 논의들을 정리해보면 군례를 통해 황후와 여러 부인들과 공주들 교방 기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상대하고 화려한 장관을 연출한다. 그리고 이 분위기는 엄숙하고 진지한 것이 아니며 부인들이 서로 설전을 붙으며 웃음을 터뜨린다. 양씨는 자못 진지하게 임하였으나 설강운의 웃음으로 인해 분위기는 다시 유쾌한 면모를 보인다. 또한 모의전쟁에서 유희가 드러나는 이유는 여걸들의 재주가 위급한 상황을 대비한 훈련이 아닌 유희의 맥락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沈能淑은 여성들이 모의전쟁을 벌이는 기이한 내용을 선정하여 파격적인 재미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앞치락 뒤치락하는 전세를 통해 인물들의 능력 차이를 보이면서 흥미적인 요소를 더욱 부각시켰다.

2. 敘述的 特徵

『玉樹記』가 유쾌하고 재미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단지 놀이가 사

건의 중심이기 때문만이 아니다. 즐거운 분위기를 유도하는 서술 기법이 있기 때문이다. 『玉樹記』에서는 다양한 기법으로 유쾌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서사를 일부러 지연시키기도 하고, 농담으로 단락을 마무리하여 웃음을 강화시키고, 등장인물을 희화화하기도 한다. 이번 장은 『玉樹記』의 분위기가 즐거운 까닭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예시를 통해 어떠한 서술적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1) 敍事의 遲延

『玉樹記』에서 유쾌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서사를 지연하는 기법 때문이다. 설강운이 물에 빠진 후의 서사와 군례 장면의 서사를 길게 확대함으로써 유흥이 드러나는 장면이 끝나지 않게 하고 있다.

먼저 설강운이 물에 빠진 후의 이야기가 서술되는 장면을 살펴보겠다.

미인(설강운)이 울면서 말하였다. “사람이라면 죽는 것을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낭군이 지금 죽는 것을 서로 허락하였으니 큰 은혜를 입은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첩이 하루 밤낮을 풍파를 맞고 蕩析하고 남해를 뚫고 떠다니며 죽은 뒤의 괴로움을 말한다면 코끝이 찡할 것입니다. 첩이 지난 밤 二更에 강에 몸을 던지고 세 차례를 물 밖에 떠나오다가 결국 명이 끊어졌습니다. 몸이 물 밑에 잠겼는데 江神이 저를 보고 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낭자는 서루의 설강운이 아니더냐? 낭자의 아름다운 외모와 청춘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첩이 울며 위절을 고하니 江神이 놀라며 말하기를 ‘이것은 두낭자와 서로 희롱한 것입니다. 소군이라 이른 자는 사실은 소경공자이며 소경을 빌린 사람은 즉 여자로 변칠랑입니다. 서주곡은 진실로 소경

이 지은 것인데 낭자는 어찌 短見하셨습니까?’ 첩이 이것을 듣고 스스로 원망하고 스스로 자책한 것이 또한 어찌 미치지겠습니까? 잠시 후에 물이 배에 가득차서 수면에 떠올랐는데 四更에 동정호에 이르렀다. 이때 동정호의 龍女와 낭군 柳毅가 남악의 신선들의 모임에 가는 길에 첩의 아름다움을 보고 험박하여 혼인하고자 하였는데 첩이 비록 죽었지만 어찌 몸을 더럽히는 것을 허락하겠습니까? 龍女에게 애걸하니 용녀도 또한 그동안 총애를 받았던 것을 빼앗길까 두려워 하였습니다. (용녀가) 만류하는 사이에 광풍이 일더니 첩을 몰아내어 소상강 근처의 군산 절벽에 이르렀는데 그 절벽 위에는 오래된 사당이 있었고, 아래는 斑竹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곧 요왕의 딸이자 순임금의 부인으로 사기에 이른바 아황과 여영의 사당으로 불리는 곳으로 이름은 ‘황릉묘’였습니다. 홀연히 들으니 두 왕비가 시녀들로 하여금 첩을 불러 보고자 하였는데 첩이 옛적에 성녀인 것을 알고 따라 들어가서 배알하고 울면서 그 동안의 정사를 고하였습니다. 두 왕비는 처연하게 되어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참으로 미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술을 권하며 말씀하시기를 ‘이 술은 혼을 진정하는 술이다. 한 번 마시면 혼백과 기운이 엉기어 흩어지지 않아 밤이 되면 사람의 형상이 되어 마치 생전의 모습과 같을 것이다. 너는 모름지기 밤에 미진한 인연을 맺고 일찍이 죽어 돌아왔으니 기리어 군산의 선녀가 될 것이다. 너는 본래 나의 시비로 소경 또한 본래 상계의 선신이었는데 남악의 신선 모임에 갔다가 모임 중에 너와 더불어 눈짓으로 언약을 맺은 죄로 인간 세계로 귀양 가게 되었다. 하룻밤 인연을 맺게 하여 남은 죄를 마쳤는데 물속에 떨어진 것에 이르게 되었다. 내가 특별히 그 정을 가련하게 여겨 특별히 하룻밤만 허락하노라. 너는 모름지기 빨리 다녀오거라.’⁴⁰⁾

40) 『玉樹記』 10회 p.256~266. 美人泣曰 “人孰不畏死? 郎今以死相許, 大恩難忘. 妾身一晝夜爲風波所蕩析, 浮出南海, 死後苦厄, 言之酸鼻. 妾昨夜二更, 投身於江, 三次浮出水面, 命既絕. 身沈水底,

위의 인용문은 설강운이 귀신이 되어 가유진과 여러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장면이다. 물에 빠진 후 목숨이 끊어져 물에 잠겨 있었다가 江神을 만나게 되어 자신이 속았던 계교를 알게 된다. 그리고 龍女와 그 낭군을 만나 강제로 혼인할 뻔하였고 갑자기 광풍이 불어 아황과 여영이 있는 사당에 이르게 되었다. 이곳에서 사실은 자신이 천상의 선녀였음을 알게 되었고 두 왕비가 설강운이 애처롭게 죽은 것을 불쌍하게 여겨 잠시 인간 세상에 오게 해주었다는 내용이다.

이 장면은 설강운이 자신을 속인 인물들을 다시 되속이면서 나타나는 유희이다. 설강운이 되속인 사실을 고하게 되면 속임수가 알려지게 되면서 동시에 되속이는 장면은 끝나게 된다. 그러므로 심능숙은 설강운이 속임수를 알려주기 전까지 서사를 확대함으로써 유희가 드러나는 서사는 지연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여러 부인들이 황후에게 군례를 하는 장면에서도 서사의 지연이 나타난다. 등장인물을 늦게 등장시켜서 함으로써 유희의 분위기를 길게 유지시킨다. 군례 장면은 황후가 진월아와 백룡자매를 만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서 펼치는 유희이다. 황후와 진월아가 만나게 되면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동시에 군례 장면은 끝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심능숙은 군례 장면이 길게 서술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⁴¹⁾ 군례 장면의 인용문을 통해 서사가 지연되는 모습을 살펴보겠다.

江神見妾，亦爲之流涕曰，‘娘子莫非西樓薛絳雲耶？以娘子之國色青春，何爲而至於斯？’妾泣訴委折，江神驚曰，‘此是杜娘子之相戲，昭君云者，眞昭卿公子，而假昭卿，卽女子卞七娘也。西州曲，眞昭卿所作，娘子何爲短見？’妾聞來自怨自悔，亦何所及？而已，水滿腹中，浮上水面，四更抵洞庭。此時，洞庭龍女，與其郎柳毅，赴南岳上仙之會，見妾之美，欲脅以爲婚，妾雖死後，寧許汚身？哀告龍女，龍女亦恐奪其寵。觀海之際，一陣狂風，驅妾抵瀟湘君山之涯，上有古廟，下有班竹，卽堯之女，舜之妻，史所稱娥皇女英之祠，名曰‘黃陵廟’。忽聞二妃使侍姬召妾上見，妾知其古聖女，隨入拜謁，泣訴其情。二妃爲之悽然，顧左右曰，‘眞美人也。’以酒勸之曰，‘此酒鎮魂之酒。一飲，則魂氣凝而不散，夜返人形，如生前一般。汝須往結一夜未盡之緣，早早歸來，永爲君山仙女。汝本以吾之侍姬，而昭卿亦上界仙人，往南岳羣仙會，會中與爾。目成私約，謫下人間，以結一宵之緣，餘罰未了，至於投水。吾特愛憐其情，特許一宵，汝須亟往。’

41) 권경순, 앞의 논문, p. 45 참고.

홀연히 30여명의 미인이 작은 진을 만들더니, 한 미인을 호휘하고 수놓은 令旗를 들고 진을 열라고 소리쳤다. 무리들이 진부인이 도착한줄 알고 다투어 일어났으나 그 미인은 위장군의 처 주씨였다. ... 조금 후에 100여명의 남자들이 말을 타고 있는 미인 한 명을 둘러싸고 金鼓를 울리며 繡旗를 짝지어 들고 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궁중의 사람들이 진부인이 도착한 것으로 생각하고 앞 다투어 일어났으나 공주가 “이 사람은 양씨다.”라고 하였다. ... 잠시 후 북소리가 크게 울리더니 수백 명의 남자들이 수행하여 15~6세의 꽃과 달 같은 여장군이 나왔다. 그 미인은 그림 같은 눈썹과 별 같은 눈동자, 붉은 입술과 보석 같은 보조개를 가지고 있었고, 빠르기는 가벼운 기러기 같고, 완연히 춤추는 난새 같았다. 허리에 寶弓을 차고 왼쪽에는 금화살을 지니고 아름다운 옷과 수놓은 치마를 입었으며 손에는 雕戈를 잡고서 한 필의 軟紅馬를 타고 있었다. 15~6세의 미인은 성대하게 단장하고 꾸며 매우 곱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80여명의 사람들이 앞뒤로 호위하여 곧바로 군중으로 들어오자 六宮이 크게 놀랐다. 황후와 여러 부인이 정말 진부인이라고 여기고는 누대에 임하여 보고 감탄하였다. “진부인은 정말로 신선중의 사람이구나.” 공주와 두 부인 및 남자들이 모두 크게 놀라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진부인이 아니다. 어느 집 부인인가? 화장군의 탕씨가 아니겠는가?” ... 잠시후 旌節이 좌우로 나뉘고 繡旗를 짝지어 들고 좌우로 남자들 300명이 모두 성대히 장식하니 군물과 기복이 매우 기묘하였다. 기가 열린 곳에 약 20세쯤 되는 한 부인이 머리에 九鳳冠을 쓰고 몸에는 七章之服을 입고 옥패 소리를 울리며 물처럼 이르렀다. 빛이 궁궐을 흔들며 마치 밝은 달이 공중에 걸려 있는 듯하고, 꽃이 모든 나무에서 피어 봄 바람이 향을 뿌리는 것과 같았다. 육궁의 비빈이 실색하고 삼천 궁녀와 무안하였다. 황후는 마음과 눈이 황홀하여 공주를 돌아보고 말하였

다. “이 사람인 것인가? 내가 처음에 상청궁의 용이 잡자는 것을 그린 것인지, 관부인이 수놓은 남해관세음족자를 앞에다 옮겨 걸어놓은 것인지 의심하였다.”⁴²⁾

위의 인용문은 군례 중 황후에게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여 알현하는 장면이다. 처음에 주씨가 등장하고, 다음에는 양씨, 그 다음에는 백룡자매가 등장한 후에 마지막으로 진월아가 등장한다. 진월아가 등장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정체를 숨긴 채 등장시켜 황후와 궁 안의 사람들로 하여금 진월아로 생각하게 만든다. 작가는 의도적으로 진월아의 등장을 늦춤으로써 군례 장면을 길게 서술하고 있다.

2) 弄談을 통한 웃음의 強化

『玉樹記』에서는 등장 인물간의 대화를 통해 웃음이 강화된 모습을 보인다. 특히 농담을 하고 포복절도 하는 장면에서 이 모습이 두드러진다. 대화를 통하여 웃음이 직접 서술되는 장면을 활용하여 논의를 서술하도록 하겠다.

『玉樹記』가 밝고 유쾌한 분위기를 가지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웃음의 직접적인 서술이다. 『玉樹記』는 등장인물들의 대화가 서술에서 많은 비중

42) 『玉樹記』 10회 p.362~371. 忽見三十餘箇美人，結小陣，擁護一美人，執繡字令旗，傳呼開陣。衆以謂晉夫人至，爭起見之，其美人，乃魏將軍妻朱氏也。… 少頃，百餘娘子軍，擁一騎馬上美人，金鼓雙雙，繡旗對對，傳呼開陣。宮中以謂眞箇晉夫人至，爭起見之。公主曰“非也。此梁氏也。”… 俄已鼓聲大鳴，數百娘子軍隨着，一介十五六歲，如花如月之女將軍而來，畫尾星眸，丹唇寶鬢，翩若輕鴻，宛若無鸞，要帶寶弓，金箭左右，珠衣繡裳，手執雕戈，騎着一匹軟紅馬。十五六歲美人，凝粧盛飾，騎艷妖妙者，八十餘人，前遮後擁，直入中軍，六宮大驚。皇后與衆夫人，以謂眞箇晉夫人，臨樓下，見嘆曰“晉夫人，眞神仙中人。”公主與兩夫人·諸娘子，皆大驚曰“此非晉夫人，是誰家夫人？莫是花將軍夫人湯氏耶？”… 俄已 旌節分左右而至，繡旗雙雙，左右娘子軍三百人，皆凝粧盛飾，軍物·器服，皆極奇妙。旗 開處一位夫人，年可二十青春，頭載九鳳冠，身七章之服，玉佩珊然，如水而至，光搖一殿，如明月當空，花開萬樹，如春風散香。六宮妃嬪失色，三千粉黛無顏，皇后娘娘，心目恍惚，顧謂公主曰“是人耶？吾初疑上清宮龍眠所畫，管夫人所繡南海觀世音簇子，移掛於前。”

을 차지하는 작품이다. 즉, 대화를 통해 이끌어 가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대화중에 장난 섞인 대화가 작품 곳곳에 자주 등장한다.⁴³⁾ 등장인물의 장선 섞인 대화는 가유진과 형제들이 농담을 하는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다.

㉠숙형이 말하였다. “둘째 형은 큰 형을 장가들지 못하게 하고 또 아무도 장가들지 못하게 하니 이는 족히 마음쓰기를 공교히 합니다.” 인하여 자리에서 절도하였다.⁴⁴⁾

㉡유겸이 말하기를 “남자께서는 사사로움이 많아 남편을 지나치게 포장합니다. 우리 형이 남자를 얻은 후에 시격이 한 층이나 높아졌으니 이불속의 가르침이 반드시 오묘한 비결이 있는 듯합니다.” 라고 하니 모두가 웃었다.⁴⁵⁾

㉠의 내용은 가유진이 설강운을 속이고자 하는 행동에 대해 두 동생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서사이다. 둘째 동생인 가유승은 한 번에 두 아내를 얻는 것은 지나치지 않으나며 말리는 진지한 모습을 보이고, 셋째 동생인 가유겸은 요도사의 예언⁴⁶⁾대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니 그 말을 따르자며 호탕한 성격을 보인다. 두 형제의 의견이 갈리고 서로 설전을 벌인 끝에 가유겸이 형들을 설득하고 분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 농담을 던진다. 가유겸이 아무

43) 권경순, 앞의 논문, p.49

44) 『玉樹記』, 4회, p.235. 叔亨曰 “二哥禁兄不得娶, 又禁弟不得娶, 足見用心之巧.” 因絕倒於座.

45) 『玉樹記』, 4회, p.235. 有謙曰 “娘子多私過獎其外. 吾兄得娘子後, 詩格長一層, 衾裡之教, 必有妙訣.” 一座皆笑.

46) 천태산의 요도사가 가유진 형제들의 미래에 대해 예언하는 부분이 있다. 『玉樹記』, 1회, p.199. 도사가 놀라 하례하면서 말하였다. “사공자는 평범한 태생이 아니라 천인이 내려온 것입니다. 타일의 부귀를 헤아릴 수가 없고 또 대공자는 훗날 사업과 훈명이 당연히 광분양의 위에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웃으면서 말하였다. “세 번의 좋은 결연이 있을 것입니다.” … 도사가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만약 잉첩과 정실까지 합하여 말한다면 많은 기연이 있을 것입니다.”

도 장가들지 못하게 한다고 우리 형제들에게 마음쓰는 것이 인색하다는 농담을 던져 이 상황을 웃음으로 마무리한다. 이후 가유겸은 설강운을 속일 계책을 상의하는 중에도 농담을 한다.

㉔은 가유진이 지은 서주곡을 본 후 가유겸이 가유진을 놀리는 부분이다. 가유진이 시를 잘 지은 까닭이 두홍앵의 이불 속의 가르침 때문이라며 짓궂은 농담을 한다. 가유진 형제가 두홍앵과 함께 설강운을 속이기 위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누는 대화 장면이다.

위의 상황들은 모두 즐거운 상황에서 나온 대화들로 그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玉樹記』의 등장인물들이 엄숙하고 진지한 모습과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성격이 호탕한 가유겸이 농담을 던짐으로써 대화하는 상황이 자주 등장한다.

또한 『玉樹記』에서는 인물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웃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기도 한다. ‘웃었다’라는 의미의 표현이 자주 등장하여 웃긴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예를 들면, ‘大笑(크게 웃었다)’, ‘絶倒(넘어질 정도로 웃었다)’, ‘諸人大笑不能起(여러 사람들이 너무 웃어서 일어나지를 못했다)’, ‘一座皆笑(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웃었다)’는 등의 표현이 종종 등장하고 있는데, 이로써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경쾌하고 화사하게 만들어준다.⁴⁷⁾

마지막으로 『玉樹記』에서는 장면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농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장면을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우스갯소리를 사용하여 웃음으로 각각의 장면을 닫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 등장인물의 희화화

47) 김경미, 앞의 논문, 2004, p.291.

『玉樹記』가 유쾌한 분위기를 지속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등장인물을 희화화하는 모습이다. 등장인물의 외모와 행동을 묘사하고 희화화한다. 주로 칠낭의 모습을 희화화하고, 가유겸이 칠낭을 놀리는 모습에서 볼 수 있는데 이 특징으로 인해 분위기가 유쾌하고 웃음을 유도하기도 한다.

㉠홍앵은 즉시 유모인 변씨의 자식인 칠낭을 불러서 소경이 전날에 입었던 옷을 입혀 남자로 꾸몄다. 대략 칠낭은 체격이 비대하고 가로로 퍼졌고, 용모가 예스럽고 기이하고, 눈이 깊고 코가 높아 여자의 기미라곤 없었으며 겸하여 목소리가 웅동하고 말이 어눌하였다.⁴⁸⁾

㉡(홍앵이)양공자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이 또한 새로운 사람이니 더 붙어 담화하면 거의 심심풀이는 될 것입니다.” 숙형(가유겸)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신인을 어찌 우리 무리를 위하여 베풀겠는가. 복력이 없는 사람은 빌려오는 것도 이같이 기괴하구나. 모름지기 포도주나 많이 보내어 위를 진정하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칠낭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제가 오직 누추한 외모지만 가히 심심풀이로 삼을 만합니다. 만약 아름다운 외모였다면 공자께서 비록 심심풀이로 삼고자할 것인데 서 루미인과 같은 자를 어찌 얻어 보시겠습니까?” 온 자리에서 다시 웃으면서 말하였다. “누가 칠랑더러 말이 어눌하다고 하였는가?”⁴⁹⁾

㉢은 칠낭의 외모 묘사이다. 칠낭의 체격은 비대하고, 얼굴은 눈이 쑥 들어가고 코가 높아 여자의 기미라곤 보이지 않고, 말은 어눌하고 걸걸하다. 더

48) 『玉樹記』, 4회, p.236. 紅鶯卽召乳媪卞氏之弟七娘, 以昭卿前日所着之服, 換裝男子. 盖七娘, 身軀肥矮, 容兒古奇, 深目高鼻, 無女子氣味, 兼以聲嘶口訥.

49) 『玉樹記』, 4회, p.236~237. 顧爲兩公子曰“此亦新人, 與之倍話, 庶可破寂.” 叔亨笑曰“新人豈爲我輩設乎? 沒福力之人, 借來的如此奇怪. 須多送葡萄酒, 以鎮胃氣, 何如?” 七娘笑曰“唯醜兒, 可以破寂. 若美兒時, 公子雖欲破寂, 如西樓美人, 豈可得見乎?” 一座復笑曰“誰道七娘口訥?”

육이 남장을 하여도 용모가 기이하다며 칠낭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 그런데 칠낭이라는 인물은 외모만 웃긴 것이 아니라 어리숙한 말솜씨로 좌중을 크게 웃기는 것으로 묘사된다.

㉞은 두홍앵이 가유진으로 변한 칠낭을 가유진의 동생들에게 소개하는 부분이다. 칠낭을 본 가유겸이 기괴한 사람과 노느니 그냥 술로 위를 달래겠다고 한다. 그러자 칠낭은 자신과 있으며 심심풀이는 면할 것이며 서루미인과 같은 자를 당신이 어찌 얻어보겠냐며 농담을 한다. 칠낭의 어눌한 말솜씨로 한바탕 웃음이 벌어지는 장면에서 장난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인물들의 대화 내용과 외모를 묘사하는 장면은 모두 유쾌하다. 인물들이 자신의 기분을 드러내면서 자연스럽게 웃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칠낭의 외모 묘사는 두홍앵, 소경, 설강운 사이에서도 언급된다. 바로 가유진으로 변장한 칠낭의 모습을 보고 농담을 하는 것이다.

소군이 또 말하였다. “...다만 내일 아침 몰래 엿보고서 아까 마신 술이 구역질이 나올까봐 두렵습니다.” ... 홍앵이 포복절도하며 말하였다. “... 동침할 때 눈을 감고 보지 않으면 해롭지 않습니다.” 이 말로 인하여 여러 사람들이 웃느라 일어날 수 없었다. ... 미인이 말하였다. “이미 신약이 있는데 남자께서는 어찌 가량의 추함을 싫어하십니까?” 소군이 말하였다. “비단보 안에 개똥이 묻었는데 차마 알면서 취하겠습니까.” 세 사람이 모두 웃었다. 50)

이처럼 가유진으로 변장한 칠낭의 모습을 농담 삼아 희화화하며 세 명은 포복절도 한다. 이들이 던진 농담 때문에 포복절도하는 모습에서 인간의 자

50) 『玉樹記』, 4회, p.246~247. 昭君又曰 “... 但恐明日窺見, 則必嘔出俄間所飲之酒.” ... 紅鸞絕倒曰 “以謂同枕時, 瞑目不見, 則何傷乎?” 因與諸人, 笑不能起.. ... 美人曰 “既有神丹, 娘子何嫌嘉郎之醜?” 昭君曰 “錦襪裏狗矢, 豈可知而取之耶?” 三人皆笑.

연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상황을 낳게 된다.

칠낭의 외모와 행동을 묘사하는 부분은 설강운이 귀신이 되어 나타난 곳에서도 서술된다.

강운이 말하였다. “ … 또 웃음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 칠낭이 古奇한 모양으로 청흑한 빛으로 변하고 거의 죽은 사람이 되어 나를 보기를 진실로 강가에서 순행하는 야차로 알며 염라대왕같이 여기니 사람이 절도 할 것 같았다.” 칠낭이 크게 부끄러워 하며 말하기를 “남자가 이미 강물에 투신하지 않았으니 어찌하여 강을 걷는 야차를 알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모두 웃었다.⁵¹⁾

설강운이 죽은 것을 죄스럽게 여겨 목숨만을 살려달라고 빌고 있던 칠낭의 앞에 죽은 줄 알았던 설강운이 귀신이 되어 나타난 후 칠낭의 외모와 행동을 묘사한 것이다. 칠낭이 설강운을 보고 야차와 염라대왕을 본 듯 깜짝 놀란 표정이 기괴하다 놀린다. 그러자 칠낭은 남자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야차를 본 것은 아니라며 재치있게 대답한다.

Ⅲ장의 논의는 『玉樹記』에서 유흥이 전개되는 장면을 선택하여 그 양상을 살펴보고, 서술적 특징을 정리하였다. 옥수기에서 유흥이 두드러지는 놀이는 서루 놀이와 모의전쟁 놀이이다. 작품의 양적인 측면에서 4/1 정도를 차지하므로 적지 않은 양이다. 유흥 장면은 시문과 대화, 겨루기를 통해서 드러났다. 각각의 장면을 통해 옥수기의 등장인물이 풍류를 즐기고 유희를 즐기는 인물들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술적 특징으로는 서사의 지연, 농담을 통한 웃음의 강화, 등장인물의 희화화된 모습을 통해 유쾌한 분위기가 드러난 것을 알 수 있었다.

51) 『玉樹記』, 5회, p.269. 絳雲曰 “ … 又不可忍笑者, 七娘古奇之兒, 又變青黑色, 已作死人, 視我若眞箇巡江夜叉閻羅大王, 令人絕倒.” 七娘大慙曰 “娘子既不投江, 何以知巡江夜叉乎?” 諸人皆笑.

IV. 玉樹記의 意義

Ⅲ장에서는 놀이를 기준으로 『玉樹記』에 웃음과 유희가 드러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유희가 드러난 양상을 다른 소설과 비교하여 옥수기의 특징을 도출할 것이다. 金萬重의 『九雲夢』과 南永魯의 『玉樓夢』을 비교하여 동일한 모티브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玉樹記』는 소설 전체 분위기가 웃음과 유희를 추구하는 경향은 아니지만 놀이가 중심 사건이 되는 부분적인 장면은 유희적이라 할 수 있다. 유희를 처리하는 방식이 오락적인 이유를 沈能淑이 소품적 성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의 산문 작품인 『後吾知可』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玉樹記』가 소설사적으로 가지는 의의를 종합하여 IV장을 마무리할 것이다.

1. 『玉樹記』의 特徵

『玉樹記』의 특징을 논의하기 위하여 다른 소설과 비교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玉樹記』를 비교하기 위한 소설로 金萬重의 『九雲夢』과 南永魯의 『玉樓夢』을 선정하였다. 이 소설은 모두 작자가 분명하게 밝혀진 장편소설이다. 그리고 『玉樹記』에서 유희가 나타나는 장면과 동일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소설들이다. 『九雲夢』에서 등장인물이 속이고 되속이는 내용, 『玉樓夢』에서는 여성 인물들이 모여 겨루기를 벌이는 서사가 그러하다.

이 소설들을 비교하기 이전에 『九雲夢』의 원작에 대해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다.

『九雲夢』은 그 원작이 한문본인지 한글본인지에 대해 이견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九雲夢』이 한문본이 원작인 것으로 전제하여 논의를 기술할 것이다.

한문본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정규복의 『九雲夢』 연구⁵²⁾의 근거로 대신하겠다. 우선 『九雲夢』은 15종의 이본 중 10종의 국문본 이본을 살펴보면 내용과 문체가 한문본의 번역에서 유래하였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두 번째, 김만중이 썼으리라는 국문본 『九雲夢』이 현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 김만중의 작품 중 『사씨남정기』는 국문으로 썼다는 뚜렷한 기록이 있지만 『九雲夢』은 국문으로 썼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九雲夢』의 원작을 한문본으로 보도록 하겠다.

南永魯의 『玉樓夢』 또한 19세기에 지어진 소설이며 『九雲夢』에서 여러 가지를 수용한 소설이다. 남영로도 沈能淑과 마찬가지로 근기지방의 상층사대부 출신이지만 정치에는 소외된 인물이다. 이 두 사람은 직접적인 교류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근기지방 사대부 문인이고 다른 문인과 교류했다는 점에서 활동 영역이 비슷한 것으로 보고 『玉樹記』의 동일 모티브와 어떤 차이점을 갖는지 특징을 비교하겠다.

1) 敍事의 擴大와 웃음의 強化

『九雲夢』에서 양소유와 팔선녀가 결연을 맺기 위한 기법으로 속임수가 빈번히 발견된다. 그 중 『玉樹記』와 동일한 모티브를 보이는 것이 양소유와 정경패의 이야기이다. 양소유는 모친의 서신을 가지고 장안의 두연사를 찾아가 혼인을 의논한다. 이에 두연사는 정사도택의 딸 정경패를 추천한다. 정경패는 이미 낙양에서 계섬월이 추천한 인물로 낙양과 장안에서 소문이

52) 정규복, 「『九雲夢』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 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자하니 직접 만나보지 않고는 혼인할 수 없다는 소유에게 두연사는 계책을 낸다. 그 계책은 정사도가 음악에 흥미가 있으니 양소유가 거문고를 연주할 수 있는 女冠으로 변장을 하여 정사도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여악사로 변장한 양소유는 일종의 속임수로 정경패를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정경패는 시비 가춘운을 변장시켜 다시 양소유를 되속인다. 양소유는 계교에 빠진 줄 모르고 귀신을 가장한 가춘운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가춘운이 영벌을 고하자 그녀에 대한 그리움으로 상사병에 걸린다. 이후 정사도 부부의 초대로 집을 방문하는데 그곳에서 가춘운을 보고 자신이 속은 것을 알게 되고 정경패를 속인 것에 대한 용서를 빈다. 이상이 『九雲夢』에서 양소유와 정경패의 속임수 내용이다.

『玉樹記』과 『九雲夢』에서 속이고 되속이는 사건의 구도를 표를 통해 정리해보겠다.

표4. 속임수를 행하는 사건의 구도 정리

	1차 속임수		2차 속임수	
	속이는 자	속임을 당하는 자	속이는 자	속임을 당하는 자
옥수기	가유진, 두홍앵, 칠낭	설강운	설강운	가유진, 두홍앵
구운몽	양소유	정경패	정경패, 가춘운	양소유

위의 표와 같이 속임수의 구도를 나눌 수 있다. 1차로 속임을 행하는 주체는 옥수기에서는 가유진이 여복을 하고 칠낭이 남복을 하고 양소유는 여복을 하여 상대방을 속인다. 옥수기에서 구운몽보다 더 많은 인물이 속임에 가담하는 모습에서 서사가 확대된 면모를 볼 수 있다.

또한 옥수기와 구운몽에서 속이는 자들의 성격은 모두 호방하다. 풍류를 즐겨워하고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인물들이다. 그러나 처음에 속임을 당했던 여성들의 성격은 차이가 있다. 설강운은 속임을 당하고도 화가 나거나 분한 기색이 없으며 오히려 또 다른 계교를 속일 다짐을 한다. 설강운 또한 풍류를 즐기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운몽에서 속임을 당한 정경패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가 여장으로 변장한 남자와 시 짓기를 하고 대화를 주고 받았으며 부끄러워한 후 이에 대한 복수로 양소유를 되속인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처와 첩의 신분 때문에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옥수기에 두홍앵과 설강운은 가유진의 첩이 된다. 첩에게는 웃음과 유희가 그 자체로 요구되기도 하고 인정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구운몽에서 정경패는 양소유의 처가 된다. 처에게 요구되는 유가적 명분의 맥락 속에서 조화로운 유머를 추구하고 있다.

『玉樹記』에서 서술되는 되속이기 모티브는 『九雲夢』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비슷하다. 그러나 서사가 확대된 점과 웃음의 측면에서 보면 차이점이 드러난다.

『九雲夢』에서는 정경패가 양소유가 여장을 하여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까지 시간이 매우 짧다. 단 하루 만에 속이고 깨닫는 일이 일어난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양소유가 女冠으로 여장하고 거문고를 연주하고 8곡을 마친 후 9곡으로 마무리하며 노래하는 도중에 깨닫게 된다. 그리고 정경패는 즐거운 표정이 사라지고 상기된 모습으로 처소로 돌아간다.

『九雲夢』은 속임을 당하고 그 계략이 들통나는 과정이 짧기 때문에 주변 인물의 행동 묘사나 자신의 내면 심리 묘사에 대한 서술이 구체적이지 않다. 그러나 『玉樹記』에서는 인물의 행동과 심리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기 때문에 서사가 확대된 경향이 있다. 설강운이 가유진이 변장한 소군을

만나 함께 풍류를 즐기고, 칠낭이 변장한 가유진을 만나는 과정의 서사가 길다. 그리고 설강운이 속임수를 직접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시비인 운선을 통해 듣게 되어 다시 그것을 확인한다. 이 과정 또한 서사가 확대된 것에 영향을 주며, 속임수를 확인하는 부분에서 운선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설강운의 내면심리도 나타나게 된다. 아래 예문을 살펴보겠다.

갑자기 두낭자의 방안에서 양 공자가 웃고 말하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운선이 놀라 말하였다. “신부의 방안에서 두 공자가 무엇을 하시는 걸까?” (운선이) 몰래 걸음을 옮겨 창 틈으로 엿보려고 하였다. 이때 달빛이 창에 가득하여 달 그림자로 인해 탄로가 날까봐 염려되어 북상 아래 몸을 숨기고 머리 옆의 작은 금비녀를 빼서 그 비녀 끝에 침을 묻혀 창호지를 뚫었다. 그런데 이것은 종이로 된 창이 아니라 갑으로 된 창이었고 안에도 비단 휘장을 내려뜨리고 있었다. 53)

위 내용은 설강운이 가유진이 의심쩍어 시비 운선을 시켜 두홍앵의 방을 엿보는 장면이다. 운선이 몰래 엿보는 행동과 들키지 않으려는 모습이 생생하게 표현된다. 살금살금 걷는 모습, 그림자가 비칠까 마루에 몸을 숨는 모습, 침으로 창호지를 조용히 뚫는 모습 등이 구체적이고 생동감있게 묘사되었다.

그리고 『玉樹記』에서는 주로 ‘~自思於心曰’, ‘~自思(語)’ 등의 구를 사용하여 등장인물의 내면심리를 드러내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⁵⁴⁾ 설강운이 운선에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 두홍앵의 방 앞을 몰래 엿탐하고 자신이 속은 것을 확신하는 부분의 예문이다.

53) 『玉樹記』, 5회, p.252. 忽聞杜娘子房內隱隱兩公子笑語聲, 雲仙驚曰“新人內房, 兩公子何爲而在?” 暗移步, 欲從窓隙窺之. 時, 月色滿窓, 慮爲月影所路, 隱身北廂下, 拔鬢邊小金釵, 以釵尖和涎, 穿窓紙, 乃非紙戶, 卽是紗窓, 而內垂翠帳.

54) 권경순, 앞의 논문, p.56

이때, 강운이 그간 계획을 세워 자신을 속인 일을 상세히 듣고서 소군이 소경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게 되었다. 하물며 시를 읊는 소리를 들으니 완전히 생황과 봉새가 조화롭게 우는 것 같았다. 강운이 기뻐하며 밖으로 나오니 즐거움이 마음에 가득하여 오히려 자신이 속았다는 분함은 알지 못하고 스스로 말하기를 “과연 내가 생각한 바에서 벗어나지 않았구나.”라고 말하였다.⁵⁵⁾

설강운이 계교에 속은 것을 기뻐하는 감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설강운은 자신의 시감과 사람을 보는 눈이 생각한 것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분한 감정도 있고 기뻐한다. 서주곡을 지은 가유진의 재주와 능력을 보고 그를 따르기를 결심하였지만 막상 실제로 마주하게 되니 귀인의 재모가 느껴지지 않아서 고민하였으나 그 고민이 해결되어 기뻐하는 심리가 독백으로 서술된다. 운선의 조심스러운 행동의 묘사와 설강운의 내면 심리를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서사가 확대된 것이다.

다음으로 웃음의 측면을 살펴보겠다. 전대 소설에서 웃음은 대개 풍자적이거나 골계적인 웃음으로 나타난다. 『鍾玉傳』, 『烏有蘭傳』의 인물들은 자신들의 거짓을 드러나게 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는 상황이 되지만 이것은 풍자적인 웃음을 보인다. 그리고 작중 인물들 자체가 그 상황을 즐기고 있지 않다.

전대 소설과 비교한다면 『九雲夢』과 『玉樹記』는 공통적으로 유머가 있는 웃음이다. 신재홍은 『九雲夢』의 기저에 놓인 분위기를 사대부의 웃음, 점잖은 웃음으로 보았다.⁵⁶⁾ 그러나 『玉樹記』는 가볍고 유쾌하며 쾌락적인

55) 『玉樹記』 5회 p.255. 此時，絳雲細聽其間設計相瞞之事，及明知昭君之爲昭卿也。況聞誦詩聲宛若笙鳳和鳴，絳雲喜出望外，滿心快樂，還不知自己見瞞之忿，自語曰“果不出吾之所料。”

56) 신재홍, 「〈九雲夢〉의 서술원리와 이념성」, 고전문학연구 5권, 한국고전문학회, 1990. p.142~145 참고.

웃음으로 『九雲夢』보다 『玉樹記』에서 나타나는 웃음이 더욱 적극적인 면모를 보인다.

그리고 주인공들이 상호를 속이는 장면에서 겉으로는 여성 우위적인 면모가 보이는 듯 하다. 그러나 모두 속임의 방식을 통해 모두 남성의 처와 첩이 되었다는 것에서 내면에는 남성이 우위인 것을 배후로 하고 있다.

2) 博學한 知識의 表出

편을 나누어 겨루기를 하는 모티브는 『玉樹記』와 『玉樓夢』에서 여성과 여성이 대결을 펼치는 구도로 형상화된다. 『玉樹記』는 여성들이 편을 나누어 모의전쟁을 하였고, 『玉樓夢』에서는 여성들이 격구로 대결을 펼친다. 이 두 소설에서 대결을 펼치는 구도의 양상을 표로 정리해보겠다.

표5. 겨루기 놀이의 구도 정리

	겨루기		
	대결 종류	대결 인물	
옥수기	모의전쟁	진부인, 양씨	파릉공주, 백룡자매
옥루몽	격구	<진왕부> 철귀비 진나라 기생 반귀비 괘귀비	<연왕부> 강남홍 연왕부 기생 벽성선 일지련

『玉樹記』와 『玉樓夢』에서 겨루기에 참여하는 여성 인물들은 모두 무예와 도술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다. 『玉樹記』에는 진부인이 진법에 뛰어나고, 양씨는 도술에 뛰어나며 파릉 공주와 백룡자매는 검술에 재능이 있다. 『玉樓夢』에서 강남홍은 검술에도 뛰어나지만 어려서부터 도술을 배워 남

장을 하고 살아가는 인물이다. 칠귀비도 마찬가지로 무술에 능한 인물이다.

『玉樹記』와 옥루몽에 등장 하는 여걸들의 성격은 호방한 모습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그렇지만 대결 종류와 서술방식에는 차이를 보인다.

『玉樹記』에는 모의전쟁을 통해 병법에 대한 지식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진부인이 진법에 통달한 인물로 모의전쟁에서 싸우는 진법은 학익진의 모양을 하고 있다. 학익진은 학이 날개를 펼친 듯한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처음에는 일자 형태의 진을 취하고 있다가 적군이 공격하게 되면 중앙으로 부대가 뒤로 차츰 물러나면서 좌우의 부대가 앞을 나아가 적군을 포위 공격하는 법이다.⁵⁷⁾ 파룡공주와 백룡자매가 진부인의 부대의 중앙을 공격하며 점차 앞으로 나아가다 한 순간에 좌우의 적군에게 포위되었기 때문에 학익진의 진법을 사용한 것을 유추할 수 있다. 『玉樹記』에는 군담의 자세한 묘사가 돋보이고 특히 진법에 뛰어난 서술을 하고 있다.⁵⁸⁾ 옥수기의 겨루기 모티브가 드러나는 특징은 沈能淑의 경륜을 알 수 있는 병법이 무르녹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玉樓夢』도 마찬가지로 작가의 지식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격구에 관한 설명을 자세하게 서술한다. 격구로 대결을 펼치기 전에 격구의 유래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격구를 하는 도구에 관해서도 상세히 서술한다. 그리고 경기를 시작하면 격구의 수법을 열거법으로 나열하여 이름과 어떤 기술인지를 묘사한다.⁵⁹⁾ 이렇게 『玉樓夢』은 놀이의 유래와 수법을

57)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한민족 전투)에서 학익진의 설명을 참고함.

58) 김종철, 앞의 논문, p. 60

59) 남영로, 『玉樓夢』, 김풍기, 완역 『玉樓夢』, 그린비, 2006, p. 163~167. 이때 천자가 친히 臺 위에 와서 양창곡에서 말했다. “격구는 언제부터 나왔으며 무엇을 본뜻 것입니까? 양창곡이 아뢰었다. “남방에 사자가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목 아래에 한 무더기의 터럭이 있다 하옵니다. 그것을 ‘구(毬)’라 하옵니다. 사자 새끼는 어려서부터 밤낮으로 구를 가지고 놀려 발로 차기도 하고 움켜잡기도 하면서 짐승을 잡는 법을 익히옵니다. 달리는 짐승 중에서 사자의 용맹을 칭찬하는 것은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발로 차고 움켜쥐면서 짐승을 잡는 수법이 수많은 짐승들 중에서 워낙 출중하기 때문이옵니다. 후세 사람들이 이 법을 본떠서 격구를 만들었습니다. 발로 차면 ‘각구(脚毬)’, 손으로 후려치면 ‘격구’라 합니다.” … 천자가 미소를 지으며 좌우에 명하여 격구에 사용되는 모든 도구들을 가져와 살펴보았다. 쪼갠 나무를 둥글레 만들고 수놓은 비단으로 그것을 감싸니, 이것이 바로 ‘채구(彩毬)’였다. 나무를 쪼

자세하게 표현하여 작자의 박학한 지식을 표출한다. 『玉樹記』와 『玉樓夢』은 작가 자신의 지식을 표출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지만 그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玉樹記』의 小品的 性向

沈能淑이 저술한 『後吾知可』를 살펴보면 야담에 대한 심능숙의 생각을 알 수 있다. <過庭錄> 과 <溪西雜錄>에 붙인 심능숙의 序에서 심능숙의 산문 문학관을 엿볼 수 있다. <溪西雜錄>의 序文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아! 옛날의 학식이 넓고 성품이 단아하며 기이한 것을 좋아하는 선비들은 반드시 지은 바가 있어 후세에 전해졌다. 그러나 지은 것은 같지 않았다. 혹은 荒誕한 데에 가까웠으니 水村의 『天倪錄』이 이와 같고, 혹은 속된 것 鄙俚한 것에 가까웠으니 성현(成俔)의 『慵齋叢話』가 이와 같았다. 또 혹은 잡다하여 도리에 맞지 않아 뒷사람에게 족히 내보일 만한 것이 없기도 했다. 그러나 유독 이 계서잡록은 보고 들은 것을 적실히 채록하여 황탄하고 비리한 잘못이 없으며, 사실을 모아 기술하여 도리에 맞지 않는 탄식이 없으니 야승이 실지 못한 바를 보충할 수 있다.⁶⁰⁾

개 지팡이를 만들어 조각을 하고 단청을 한 뒤 그 끝부분에 상모를 달았으니 이것이 ‘채봉(彩棒)’이었다.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서 채봉으로 채구를 치며 서로 공격하다가 만약 실수하여 땅에 떨어뜨리면 이것으로 승부가 갈리는 것이었다. … 갑자기 버드나무 같이 가는 허리를 한 번 굽히면서 쌍봉이 한번 번득이자 채구가 백여 길이나 솟구쳤다. 이른바 곤풍구라고 하는 수법으로 바람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었다. 일지런이 다시 말을 달려오면서 손에 들고 있던 채봉을 공중에 던져서 내려오던 채구를 받아치자 채구는 다시 구름 사이로 솟구쳤다. 좌우의 모든 기녀들이 갈채를 보내며 칭찬하였다. 이것은 바로 유성구라고 하는 수법인데, 유성처럼 빠르다 해서 붙은 이름이었다. … 갑자기 채구를 사납게 쳐서 날아가는 화살처럼 빠르게 그 채구를 강남홍의 옆에 떨어뜨리려 하였다. 바로 벽력구라고 하는 것인데 급하고 빠른 것이 마치 벼락과 같아서 붙은 이름이다. … 춘풍구라고 하는 수법인데 봄바람이 땅에서 일어나는 듯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60) 沈能淑, 『後吾知可』 5券, <溪西雜錄序> … 噫. 古之博雅好奇之士, 必有所著, 流傳於後, 然所著不一.

沈能淑은 야담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보고 들은 것을 적실히 채록하여 황탄하고 비리한 것이 없으며, 사실을 수집해 기술하여 모범’ 되어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학관을 바탕으로 『玉樹記』 살펴보면 옥수기는 도술을 부리고 신선들이 먹는 환약이 등장하므로 차이점을 보인다. 사실적이고 모범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沈能淑이 『玉樹記』에 영향을 미친 산문론은 어떠한 것이며 『玉樹記』와 관련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小品文은 조선후기에 유행한 글쓰기 방식으로 18 ~ 19세기에 성행하였다. 小品文은란 길이가 짧은 문장으로 작자의 정서와 사상, 견문을 표현하고 기록한 정서적인 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덧붙인다면 소품문은 집약된 예술성을 소유한 글이며, 작가의 독특한 정신적 특징을 담아 쓴 글이다.⁶¹⁾ 대표적인 작가로 李用休, 朴趾源, 朴齊家, 李鉦, 南公轍 등이 있다.

그렇다면 『玉樹記』는 小品文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小品文은 古文에 반대되는 탈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띤다. 古文의 대체적인 특징은 지배집단의 논리를 추구하고 윤리 지향적이며 儒家사상의 범주를 따른다. 그러나 소품은 고문이 드러낸 폐단에 대한 반발로 개인의 예술성과 서정성을 추구한다.

앞에서 沈能淑의 생애를 언급한 부분⁶²⁾에서 洪翰周의 글을 보면 沈能淑은 고문은 법도를 다 갖추지 못하여 다른 글에 비해 손색이 있다고 하였다. 고문보다는 개인의 감정과 흥취를 나타내는 글쓰기 더 익숙하다고 생각 된다.

그 까닭으로 沈能淑은 실제로 소품적 글쓰기를 하였기 때문이다. 沈能淑은 그의 산문집인 『後吾知可』에서 18, 19세기의 문인들 사이에서 유행한 소품적 글쓰기를 하였다. 세련된 도시적 문화 취향을 바탕으로 개인의 취향과

或近於誕, 水村天倪是已, 或近於俚, 慵齋叢話是已. 又或駁焉不經, 不足示於來許者有之. 獨此錄의探聞見, 無誕俚之訛, 摭實記述, 無不經之歡. 補野乘之所不載. ….

61) 안대희, 『조선후기 小品文의 실제』, 태학사, 2003, p.10.

62) 본고 p.7 페이지 참고.

흥취, 정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글을 썼다.

『玉樹記』에 나타나는 ‘以文自娛’ 성향을 『後吾知可』의 예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沈能淑은 어린 나이에 시사에 활발히 참여하며 시재를 뽐내는데 이것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겠다.

시사는 순제를 파한 다음 모이는 자가 오히려 많았다. 노소의 문음이 14인이었다. 심영수가 나이가 가장 어리지만 시는 가장 잘 지었다. 이칠십사의 뜻을 취하여 모임의 이름을 칠칠회하 하고 심영수로 하여금 시사를 주관하게 하였다. 칠월 칠석에 다시 칠칠회를 열어 대략 술과 안주를 마련하고 밤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늦게 오는 자는 별을 내리자는 약속을 글로 남겼다. 벗 서계 이공은 시간을 맞추어 왔고, 연암 박지원 어른과 임언도 어른이 함께 모였는데 영수가 가까이 살면서 늦게 왔다. 내가 별을 내리려 하자 연암이 호령하기를 “어른과 약속을 해놓고 늦게 오니 거기에 해당하는 벌률은 대명률에도 이미 실려 있지 않다. 그러니 또한 벌률 중에는 없는 별로서 적용하리라. 대개 읊은 시보다 엄한 것이 없고, 별은 시보다 기이한 것이 없다. 지금 시율에 의거해 다스리고자 하는데 저 자는 본래 시율에 능하여 교묘히 입재주 놀리기를 배워 시낭에 재주를 숨겨두고서 아닌 것을 가리켜서 옳은 것이라 하며 쉽게 안을 세우니 통박할 노릇이다. 이제 다시 칠언절구 3편을 별로 내리니 매 편의 말구에 대련을 나란히 쓰고 척선을 허용하지 말라, 즉각 지어서 바치면, 이것에 의거해 침착하겠다.” 하였다. 서계가 곧장 운을 부르니 영수가 즉석에서 써서 내었다.⁶³⁾

63) 沈能淑, 『後吾知可』1券 「松史內篇」 권1, <南社詩令> “詩社旬題罷後會做者猶多. 合老少文藝爲四十人, 沈英叟年最少, 而詩最著, 取二七十四之義, 名其會曰七七會, 使主詩社. 至七月七夕, 復役七七會, 略備酒饌夜話, 書所約以後到者, 有罰. 西溪李友適到, 朴燕巖趾源丈與任丈彥道氏同會, 而英叟居近來後, 余欲旅罰, 燕巖令曰, 與長者期而後之, 律既不載於大明律, 則亦以律中所無之罰擬之. 凡律莫嚴於詩, 罰莫奇於

이 글을 쓴 사람은 洪漪라는 인물로 沈能淑과는 17살이 차이나는 연상의 친구이다. 沈能淑은 14세에 칠칠회에 참여하였는데 주로 나이든 문인들과 함께 하였다. 노성한 문인들 사이에서 어린 沈能淑이 모임을 주관하고 약속에 늦어 벌시를 짓는 상황이다.

沈能淑은 여러 시사에 들어 활동하였으며 소규모 시회는 더욱 활발하게 펼쳐졌다. 계절에 따라 꽃을 감상하고, 금객이나 적객, 가기를 불러 음악을 듣고, 술을 마시고, 산에 오르고, 정자에 오르고, 뱃놀이를 하는 등 산수와 자연 사이에서 또는 누원에서 沈能淑은 벗들과, 선배들과 어울려 담소하고 시를 짓는 것이 생활의 대부분이었다.⁶⁴⁾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沈能淑이 소품문의 대표적 작가인 朴趾源과 어린 나이에 교유한 점이다. 또한 그는 李書九, 徐有渠와도 오랫동안 교유하였다. 沈能淑이 연암 일파와 접하면서 그들의 문학적 성과를 알고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⁶⁵⁾

다음 글은 벗들과 시회에서 생동감 있게 즐기는 모습을 서술한 글이다.

2월 초 4일 저녁 쌍수와 엽산이 오고, 이어서 창명과 현거가 뒤따라 와 자지를 잡았다. 얼마 뒤 백거와 금사가 손을 잡고 찾아왔고, 이운이 끝으로 도착하였다. 몇 순배 술에 취하여 엽산이 병을 핑계대며 집으로 돌아갔다. 백거는 서양금을 꺼내어 통기더니 취흥이 도도해지자 곡조에 없는 요란 소리를 내며 여러 벗들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성화를 내었다. 금사가 목소리를 높혀 진루월과 양양가를 부르니 그 소리가 제법 들을 만하였다. 쌍수가 그 노래에 화답하여 노래를 부르고, 요조하게 노래를 익히던 현거가 무성의 통소를 불고, 창명이 부채로 장단을 맞추었다. 이운

詩, 今欲依律治之, 而被本善治律, 學巧舞舌, 藏賄錦囊, 指非爲是, 容易立案, 可痛可怕. 今更以七絕三篇施罰, 而每篇末句, 竝用聯對, 勿許隻扇, 卽刻題進, 憑此照驗事. 西溪子直呼韻, 英叟卽席書進.”

64) 강혜선, 앞의 논문, p.163.

65) 강혜선, 앞의 논문, p.163.

은 까르륵 웃음을 그치지 않았다. 현거가 몇 번이나 입술을 붙였다 떼었다 하며 통소를 부니 겨우 끼루룩 하는 소리가 났다. 문득 좌중을 돌아보며 “내 통소연주가 어떤가?” 하였다. 모두들 칭찬하며 “소리가 매우 높고 묘하니, 내일 비가 오면 어찌지?” 하였다. 그리고 나서 함께 웃으며 운을 내어 시를 짓고, 밤사이에 벌어진 아희를 기록하였다.⁶⁶⁾

이 글은 시회에서 즐기는 풍류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서양금과 통소를 불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기는 모습이다. 벗들과 시회를 벌여 한바탕 즐기는 흥취를 서술한 점에서 소품적 글쓰기를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沈能淑의 다른 산문을 살펴보면 선배로서의 우환의식과 책임감이 나타나지 않으며, 도시 속의 흥취, 정감을 중시하는 소품적 성향의 글쓰기를 하였다. 대부분 개인의 정감, 흥취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글쓰기를 한 것에서 ‘以文自娛’적 성향을 반영하였다.

『玉樹記』의 전반적인 서사 구조와 인물형상은 여전히 유가적인 면모가 부각되지만 ‘유흥’의 추구의 면모에서는 이전 소설보다 유흥을 드러내는 것이 강화되었다. 과거의 소설보다 유흥과 함께 감상적 성격이 전면에 내세우고 유흥을 처리하는 방식이 쾌락적이고 오락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놀이와 유흥으로 작품을 이끌면서 이를 통해 등장인물들이 유쾌하고 자연스럽게 묘사된다. 즉, 『玉樹記』의 이러한 양상은 19세기 소설이 이제 이념의 구속으로 벗어나 살아 있는 개인의 욕망과 웃음 즉 인간의 일상적인 면모를 담아내는 장으로 변화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⁶⁷⁾

『玉樹記』에서 소품적 성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66) 沈能淑, 『後吾知可』4券 「松史內篇」 “二月初四夕, 雙樹與葉山而至, 繼以滄溟玄居踵席. 少頃, 白居與錦沙携手而訪, 怡雲未至. 而醉酒怡數行, 葉山以病而歸. 白居叩出洋琴, 醉興自得, 繁聲無腔, 促諸友唱曲. 錦沙抗聲歌秦樓月襄陽歌, 音韻殊可聽. 雙樹和以歌之, 窈窕若熟習者玄居, 吹無聲之簫, 滄溟以扇節之. 怡雲恰恰笑不已. 玄居吹簫幾繁曆, 纔出鶯音, 輒顧四座曰 “吾簫何如.” 衆皆贊之曰, “聲甚高妙, 而奈明日雨何?” 因相與笑, 卜韻共賦, 以記終宵雅戲…”

67) 김경미, 앞의 논문, 2004, p.134~135.

우선, 沈能淑은 古文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소품적인 글쓰기를 잘 하였다. 둘째, 『後吾知可』의 글을 살펴보면 沈能淑은 小品文에 뛰어난 朴趾源과 어려서부터 만남을 가졌다. 또한 다른 연암 일파와 접점을 가짐으로써 연암 일파의 문학적 성향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심능숙 또한 『後吾知可』에서 소품적 성향의 글쓰기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까닭으로 『玉樹記』에 소품적 성향이 나타났다고 생각 된다.

3. 『玉樹記』의 小說史的 意義

지금까지 『玉樹記』와 관련한 논의에서 중심으로 이루었던 것은 등장인물의 놀이와 유희의 모습이었다. 『玉樹記』에서 남녀의 결연담이 중심 사건이긴 하지만 이 외에도 주인공들의 놀이와 유희를 즐기는 모습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玉樹記』의 놀이와 유희를 중심으로 그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玉樹記』는 유희 추구의 측면에서는 전대 소설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는 것으로 보았다. 주인공의 행동은 가문의식과 충효의식이 뒤로 물러나 있고 놀이가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한다. 등장인물이 유희를 즐기는 장면이 비중 있는 사건으로 다루어지며, 적극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따라서 등장인물들이 자유롭고 활달하게 놀이를 즐기는 면모를 보인다.

놀이를 즐기는 과정에서 가유진은 君子의 면모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즐기는 모습으로 그려지며, 여성 인물들은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모습을 보인다. 놀이와 웃음을 전면화시킴으로써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과 웃음을 가진 인물이 등장한 것이다.

『玉樹記』에 나타난 웃음은 <배비장전>이나 <오유란전> 같은 골계적인 웃음이 아닌 주인공들 자체가 상황을 즐기는 유쾌한 웃음이다. 쾌락주의적

세계관에서 비롯된 웃음으로 가볍고 유쾌한 특징이 있다.

『玉樹記』의 이러한 양상은 이념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탈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보인다. 즉, 전대 소설의 관습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놀이와 유희를 택하였고, 개인의 욕망과 웃음을 담아내는 장르로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

개인의 흥취를 담을 수 있는 까닭은 소설이라는 장르가 자유롭다는 특성 때문이다. 소설이 19세기 사대부들에게 새로운 장르로 인식되었으며, 소설이 자유로움을 바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玉樹記』에서는 이전 소설보다 유희의 면모가 강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인공들도 이념에 구속도니 것이 아닌 자유롭고 활발한 모습을 보인다. 즉, 『玉樹記』가 이전 소설과 달리 유희적 성격이 강화되고 그 결과 기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인물의 유형이 아닌 새로운 유형이 창조된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玉樹記』의 의의를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다른 소설과의 비교를 통해 『玉樹記』가 가지는 특징을 서술하였다. 『玉樹記』는 속이는 양상에서 『九雲夢』보다 서사가 확대되었고 풍류적인 면모로 인해 웃음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玉樹記』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이 더 적극적이고 풍류적인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까닭은 『玉樹記』의 여성인물은 첩에 대변하는 인물이고 『九雲夢』에 나오는 여성인물을 처에 대변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유교적 이념 안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차이를 보였다. 『玉樓夢』과의 비교에서는 작자들이 모두 자신의 박학한 지식을 표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沈能淑은 『玉樹記』를 통해 자신의 병법과 진법에 관한 지식을 서술하였으며, 南永魯는 『玉樓夢』을 통해 격구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서술하였다.

『玉樹記』에서 소품적 성향이 나타나는 까닭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 沈

能淑은 古文보다 소품적 글쓰기를 잘하였고 실제로 그의 산문집은 소품적 성향의 글쓰기이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연암일파와 교유하면서 그들의 문학적 성향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玉樹記』에는 전대 소설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웃음과 유희를 택하였고 등장인물들이 유희적 성격이 강화된 새로운 인물 유형이 나타난 점이 의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 結 論

지금까지 『玉樹記』의 유흥과 놀이가 나타나는 장면을 통해 유흥 양상과 『玉樹記』가 가지는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小楠 沈能淑(1782 ~ 1840)은 19세기를 대표하는 문인이며 그가 벼슬에서 물러나고 만년인 1835 ~ 1840에 쓴 작품이 『玉樹記』이다. 沈能淑이 저술한 『玉樹記』는 한문 장편소설이며 남윤원이 1833년에 한글로 번역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연구 경향이 결연 양상에만 치중되어 있고 『玉樹記』에 드러나는 유흥과 놀이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적다고 생각하여 이것을 논의의 단서로 잡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II장에서는 19세기 소설사와 沈能淑의 생애를 살펴보았다. 19세기 소설사의 구도는 洪羲福(1794 ~ 1859)이 중국 소설 『鏡花緣』을 번역한 『第一奇諺』의 序文을 통해 논의하였다. 제일기언의 서문에 따르면 국문 장편소설과 영웅소설은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지 못하고 쇠퇴해가는 면모를 짐작할 수 있었다. 중국 번역 소설은 초반에는 새로운 소설을 번역하여 독자층을 유지하였으나 후반으로 갈수록 독자층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한문 장편소설은 사대부에 속하지만 정치적으로 소외된 문사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등장하였다. 소설의 허구성이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박학한 지식과 당대를 지식을 담아내는 장르로 소설이 변화한 모습을 살펴보았다. 沈能淑은 어려서부터 시사에 참여할 정도로 시재가 뛰어난 인물이었으나 古文에는 비범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정감과 흥취를 드러내는 소품적 글쓰기를 좋아하였던 사람이다. 젊었을 적에는 호방한 성격에 친구들도 많았지만 말년에는 관직도 여의치 않았고 落拓不遇한 삶을 보낸 것을 알 수 있었다.

III장에서는 『玉樹記』에 나타나는 작중 인물들의 놀이에 초점을 두어 유

흥의 양상과 서술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우선 유흥의 양상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시문, 대화, 겨루기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시문을 통한 유흥은 여행과 음주와 함께 복합적으로 나타났으며 가유진의 풍류적인 기질을 알 수 있었다. 대화를 통한 유흥은 가유진과 두홍앵, 설강운이 서로 속고 속이는 행동에서 알 수 있었다. 주인공들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에 악의적인 목적이 없어 단순히 즐기고 있으며 농담과 우스갯소리를 하며 유쾌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겨루기는 여러 부인들이 벌이는 모의전쟁을 통해 살펴보았다.

유흥이 드러나는 장면에서 나타난 서술적 특징으로는 서사의 지연과 농담을 통해 웃음이 강화되었고, 등장인물을 희화화 하는 기법이 있었다.

IV장에서는 『玉樹記』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첫째, 다른 소설과 비교 둘째, 작가의 다른 작품을 살펴보았다. 『玉樹記』는 구운몽과 비교하였을 때 서사가 확대되고 웃음이 강화된 경향이 있었고, 『玉樓夢』과 마찬가지로 지식을 표출하는 장르로 소설이 인식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玉樹記』에서 소품성이 보이는 이유는 세 가지 측면을 언급하였다. 먼저 沈能淑의 古文에 능하지 못한 점, 어려서 참여한 시사에서 소품적 글쓰기를 행하였던 연암과 교유한 점, 沈能淑이 실제로 소품적 글쓰기를 한 점을 통해 옥수기에 소품적 성향이 드러난 것을 파악하였다. 이런 논의를 종합하였을 때 『玉樹記』는 전대 소설의 이념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놀이와 웃음이 확대된 소설을 창작했으며 또 이전과 다른 새로운 등장인물의 유형이 나타난 점에서 의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玉樹記』의 유흥 양상을 분석하고 이것이 沈能淑의 문학관과 관련지으려 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後吾知可』만 살펴보았을 뿐 沈能淑의 다른 작품인 『文時』⁶⁸⁾를 살펴보지 못하였다. 沈能淑의 다른 작품을 전체

68) 『文時』에는 소설론과 관련한 두 편의 글이 있다. 이 글은 조선시대의 소설에 관련한 것으로 심능숙의 소설론을 살펴보면 중요한 자료가 된다.

적으로 살펴보지 못하고 문학관을 논한 것에 한계를 지닌다. 또한 본고는 『玉樹記』의 놀이와 유희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전체적인 장면이 아니라 특정한 회만 뽑아서 서술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 전체의 주제와 특징을 확장시키지 못하였다. 그리고 한문 장편소설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玉樹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이는 새로운 논의의 장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參 考 文 獻

1. 기본자료

- 김기동, 『(筆寫本) 古典小說全集』 11卷, 아세아문화사, 1980.
- 南永魯, 『玉樓夢』, 김풍기, 완역 『玉樓夢』, 그린비, 2006
- 沈能淑, 『玉樹記』 1, 고려서림, 1988
- 沈能淑, 『玉樹記』 2, 고려서림, 1988
- 沈能淑, 『後吾知可』 6卷, 後孫家所藏.
- 장효현, 심재숙, 윤재민, 지연숙, 최용철, 校勘本 韓國漢文小說 家庭家門小說, 보고서, 2013.

2. 단행본

- 김경미, 『19세기 소설사의 새로운 모색 : 지식, 이념,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보고서, 2011.
- 김만중, 『九雲夢』, 정별설, 문학동네, 2013.
- 남영로, 『玉樓夢』, 김풍기, 그린비, 2006.
- 남영로, 『玉樓夢』, 한석수, 박문사, 2009.
- 안대회, 『조선후기 小品文의 실제』, 태학사, 2003
- 정선희, 『국문장편 고전소설의 인물론과 생활문화』, 보고서, 2012.
- 홍한주, 『智水拈筆』, 아세아문화사, 1984.
- 홍한주, 『智水拈筆』, 김윤조, 진재교, 소명출판, 2013

3. 학위논문

- 권경순, 「『玉樹記』 연구 -結緣 樣相과 敘述 特徵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김종철, 「〈玉樹記〉 研究 : 作品構造와 世界觀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전성운, 「〈玉樹記〉의 作品構造와 創作動因」,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정규복, 「『九雲夢』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

4. 일반논문

강혜선, 「沈能淑 산문의 소품적 성향에 대한 연구」, 『한국고전연구』 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3.

김경미, 「19세기 한문소설의 새로운 모색과 그 의미」, 『한국문학연구』 창간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학연구소, 2000

김경미, 「『玉樹記』 연구」, 『고소설연구』 17, 고소설학회, 2004.

신재홍, 「〈九雲夢〉의 서술원리와 이념성」, 『고전문학연구』 5권, 한국고전문학회, 1990.

이기대, 「沈能淑의 문학세계와 『玉樹記』」, 『어문논집』 48, 민족어문학회, 2003.

이병직, 「『玉樹記』에 반영된 沈能淑의 세계관 검토」, 『국어국문학』 35, 문창어문학회, 1998.

이병직, 「19세기 한문장편소설의 사회문화적 배경 연구」, 『한국민족문화』 17,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1.

조광국, 「『玉樹記』에 나타난 중국인식」, 『한국문학논총』, 2002.

조광국, 「『玉樹記』의 闕闕的 성향」, 『한국문화』 30, 서울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2.

정규복, 「『제일기언』에 대하여」, 『한중문학비교연구』, 고려대출판부, 1987

탁원정, 「『玉樹記』에 형상화된 이국, 중국」, 『한국고전연구』, 2008.

탁원정, 「『玉樹記』 속 호족이라는 이민족 형상의 특징과 의미」, 『고소설연구』, 2012.

ABSTRACT

A Study on Oksugi

- Focusing on Game and Entertainment -

Park Ji Hye

Department of Chinese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Oksugi』 is a full-length novel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in the 19th century by Sonam Nam Yoonwon (1782-1840). After successively filling the post of governor of Taein, he created the piece in his later years between 1835 and 1840 and translated it into Korean in 1883. As is written in the envoy of the Korean version of Oksugi by Nam Yoonwon, 『Oksugi』 mainly involves a relationship between a man and a woman. However, game at Seoru and mock battle game occupy large proportion in 『Oksugi』, in addition to the repeated relationship process of Ga Yujin Brothers. Hence, in order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work, it is important to examine how the scenes of main characters enjoying game and entertainment were visualized and what their roles and meanings are.

The entertainment aspects observed in Seoru game and mock battle in 『Oksugi』 were classified into poetry, conversation and competition.

Moreover, the descriptive characteristics shown in these entertainment aspects were drawn with delay of narration, laughter through jokes and the travesty of the main characters.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Oksugi』, identical motif was explained through a comparison with other novels. 『Guwunmong』 by Kim Manjoong and 『Okrumong』 by Nam Youngro were selected as the comparison subjects of 『Oksugi』. The trick motif shown in 『Oksugi』 is an element that can be also observed in 『Guwunmong』, while the narration in 『Oksugi』 is strengthened evoking extensive laughter compared to Guwunmong. As for the other motif of competition, 『Oksugi』 shows exposure of knowledge on competition, compared to Nam Youngro's Okrumong.

『Oksugi』 delightfully and naturally describes the main characters unfolding the story through game and entertainment.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impact from the lifestyle and perception of the writer. Shim Neungsook showed a tendency of enjoying literature in and of itself in his book of essays Huojjiga. Since 『Oksugi』 has stronger revelation of entertainment compared to the previous novels and Shim Neungsook also left the writing that reveals private desire in his prose pieces, this self-enjoyable tendency is observed in 『Oksugi』.

Summing up above, 『Oksugi』 chose game and entertainment as a means of growing out of the tradition of previous novel. It is notable that playful characteristics were strengthened while enjoying games compared to the previous novels, through which a new type of character was created different from the previously existing features.